

말씀성도
에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밤 12 1995

본체 부록 : 어린이판





표지 설명: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크리스마스는 상점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13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거룩한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훈을 배운다."고 말한다. 그러한 교훈의 대부분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33쪽에서부터 어린이 공의 내용의 "예수님의 탄생" (32쪽에 이르기까지 이번 호에서 다루어진다. 이 여러 기사들은 귀세주에 탄생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 (표지 사진 촬영: 스티브 벤더슨 모릴이 포즈를 취함)

어린이란 표지 설명:

"내게로 오라", 더블유 비 커커페트릭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
 성전 출입구에서 데니스 레이 10
 크리스마스는 상점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12
 그들은 성탄절 정신까지 훔칠 수는 없었다
 데비 풋처 18
 적이 친구가 됨 듀앤 씨 노울스 26
 예수님의 탄생 32

청소년란

어떤 언어로든지 윌리엄 파울리 8
 "천사님들은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데비 오를리안 20
 나는 크리스마스를 싫어했어요 패트리샤 알 로퍼 22
 도밍고 리아오의 승리 리처드 엠 톨니 40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목록 리사 에이 존슨 46

정기특별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더욱 신성하고 거룩함" 25

어린이란 (별책 부록)

미대륙의 크리스마스 2
 노래: 마리아의 자장가 잔 언더우드 핀보로와 다윈 월포드 4
 탐험: 새로 탄생하신 왕에게 드리는 선물 제럴드 에이 게랜슨 6
 함께 나누는 시간: 베폴 캐런 애쉬턴 8
 선교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탄절 제너 존스 스티드 10
 크리스마스 공예품: 트리 장식품: 눈이 내리게 함 13
 친구 사귀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호르바스 게르그,
 이므레, 페테르 재닛 피터슨 14
 지역 소식 특집: 한국 서울 성전 10주년 1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말일 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어, 아.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간-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편집장: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스, 제임스 이 피우스트

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빌 에이 맥스웰, 리셀 존 넬슨, 윌리엄 에이지 옥스, 앤 리셀 블라드, 조앤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러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스펜서 제이 콘다, 로렌 시터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윌 니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윌리엄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앤 엠 가와시카

성도의 빛: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 아린이라, 디앤 윌키

스케줄 관리: 매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디 벵 캠펠

디자인: 새리 쿡

생산 관리: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이너: 마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발행 부서 책임자: 토마스 윌 피터슨

배부 부장: 조이스 헨스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스, 켈트 에이지 소렌슨

통권: 제 357호, 제 32권, 제 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5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원

편집인: 한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5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3 번역 승인-10/93

NOVEMBER 1995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5992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

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

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

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

소를 배부 센터(☎738-6832, 정음통)로 연락해 주시기 바

랍니다.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84150.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구도자를 도움

저는 선교사업에 함으로써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의 진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언제나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찾도록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발견합니다. 매달 그 책을 받을 때를 고대합니다. 특히 저는 뉴스란에서 지역의 교회 활동 소식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아도 헤레존 장로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 지방부

비베로스 지부

어린이란에 감사함

저는 리아호나(영어 판)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 중에서 특히 "어린이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회원인 제 조카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그 책들을 열심히 읽곤 합니다. 물론 그애는 어린이란의 이야기와 게임을 읽는 가운데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잡지를 읽음으로써 저의 간증은 강화되었으며 저는 전세계 회원들의 충실함을 통하여 고무되었습니다.

윌프레도 살렘 산토스

필리핀 카루칸 스테이크

말라본 와드

구독 신청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아주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회원이었던 것처럼 느끼기는 했지만, 1993년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축복 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아 리아호나(포르투갈

어 판)에 관심이 없었으나 그 후에 어떤 특별한 선교사가 우리에게 그 책을 빌려 주어서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구독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책을 한 권이라도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잡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칼로스와 일라이언 데 프라

브라질 북 포르토 알라그라 스테이크

카초에이리니아 와드

읽는 기쁨

우리는 매달 테 스테른(독일어 판)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얻고 복음대로 생활하며 강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있는 세계 각지의 성도들에 대해 아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달 그 잡지를 고대하며 그 속에 있는 어린이란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디 코프만

스위스 베른 스테이크

발드슈트 와드

영감의 메시지

리아호나(영어 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영을 고양시켜 주는 영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 잡지를 열심히 읽었으며 때로는 매일 그 잡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여러 친구들과 그것을 돌려 본 후 철해서 보관해 왔습니다.

에르윈 에스 아티오

필리핀 툴라도 지방부

툴라도 제2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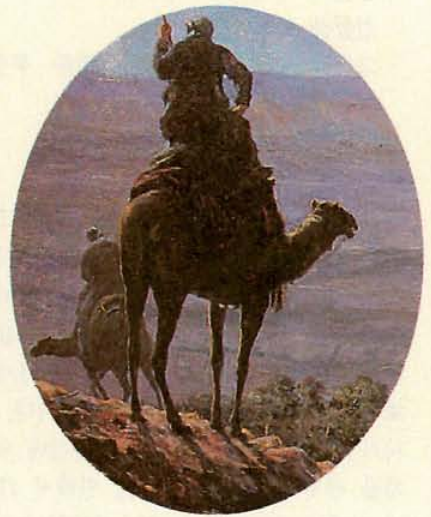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크리스마스 때 무얼 받았니?” 이것은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을 치른 이후 며칠 동안 전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주고 받는 질문입니다. 어린 소녀라면 “인형과 새 드레스와 재미있는 놀이 도구를 받았어.”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소년들은 “주머니칼하고 기차하고 또 불이 들어오는 트럭을 받았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얻은 소유물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 오면 전시되어 찬탄을 받지만 그런 다음은 잊혀져 버립니다.

그렇게 얻었던 선물들은 덧없는 것입니다. 인형은 깨지고 드레스는 낡게 되며 놀이 도구는 싫증나게 됩니다. 주머니칼은 잃어버리게 되고 기차는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이며 트럭도 건전지가 다 닳게 되면 버려지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하는 질문 중에서 단 한 낱말만 바꾼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무얼 주었니?”라는 질문은 고무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부드러운 감정을 솟구치게 하며 기억의 불꽃을 한층 더 밝게 타오르게 해 줍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
멀리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드린
가장 훌륭한 선물은
사심 없이 바치는
마음이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활짝 피게 합니다. 적이 용서 받고 친구가 기억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영혼의 전망 창을 비추어 주며 우리는 바쁜 세상 생활에서 눈을 돌려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처럼 가난한 자가?
만일 내가 목자라면
어린 양을 드릴텐데,
만일 내가 동방 박사라면,
선물을 드릴텐데,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마음뿐이야.
(크리스티나 지 로제티)

사람들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크리스마스 날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제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열 살 적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저는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전기 기관차를 갖기 원했습니다. 제 소망은 값 싸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태엽을 감아 주는 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갖고 싶어했습니다. 그 당시는 경제 공황 시기였으나, 부모님은 성탄절 아침에 제게 훌륭한 전기 기관차를 선사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신 것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시간 동안, 저는 그 기관차를 돌리면서, 엔진이 바뀌는 데서 처음에는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 하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들어오셔서 아랫 마을에서 혼자 사는 한센 미망인의 아들인 마크를 위해서 태엽 감는 기차도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차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차는 제가 받은 값 비싼 기관차처럼 길고 매끄럽지 않고, 짧고 뚱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값 싼 장난감에는 유조 차량이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 기관차에는 그런 차량이 없어, 은근히 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졸라서 그 유조 차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크보다 더 그것이 필요하다면, 갖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기관차에 그 유조 차량을 달고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나머지 것을 갖고 마크 한센에게로 갔습

니다. 그 소년은 저보다 한 두 살 위였습니다. 그는 그런 선물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제 기관차보다 훨씬 초라한 기차에 태엽을 감아 주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뿔 듯이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재치 있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토미야, 마크의 기차를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저는 전속력으로 집으로 달려 와, 유조 차량과 제 것에 있던 것 하나를 더 떼어, 한센씨 댁으로 되돌아가서 마크에게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네 기차에 붙어 있던 차량 두 개를 잊어버리고 왔단다.” 마크는 차량 두 개를 자기 기차에 붙였습니다. 저는 장난감 기차가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을 보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또 잊을 수도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이 바로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때로부터 꼭 일 년 후에 조금 더 쉽게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칠면조를 오븐에 구울 준비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제 친구 한 명이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칠면조 맛은 뭐와 비슷하니?”

저는 “음, 닭고기 맛과 비슷한 것 같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닭고기 맛은 뭐와 비슷하지?”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때 저는 제 친구가 칠면조나 닭고기를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무엇을 먹을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얼른 대답하지 않다가 눈을 내리뜨고 밑을 내려다 보면서 “모르겠어.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결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겐 칠면조도 닭고기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 때 저는 제가 토끼 두 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즉시 토끼들을 가져와 상자에 넣어 친구에게 건네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토끼 두 마리를 가져가. 닭고기 맛과 똑같아서 괜찮을 거야.”

그는 상자를 들고 울타리를 넘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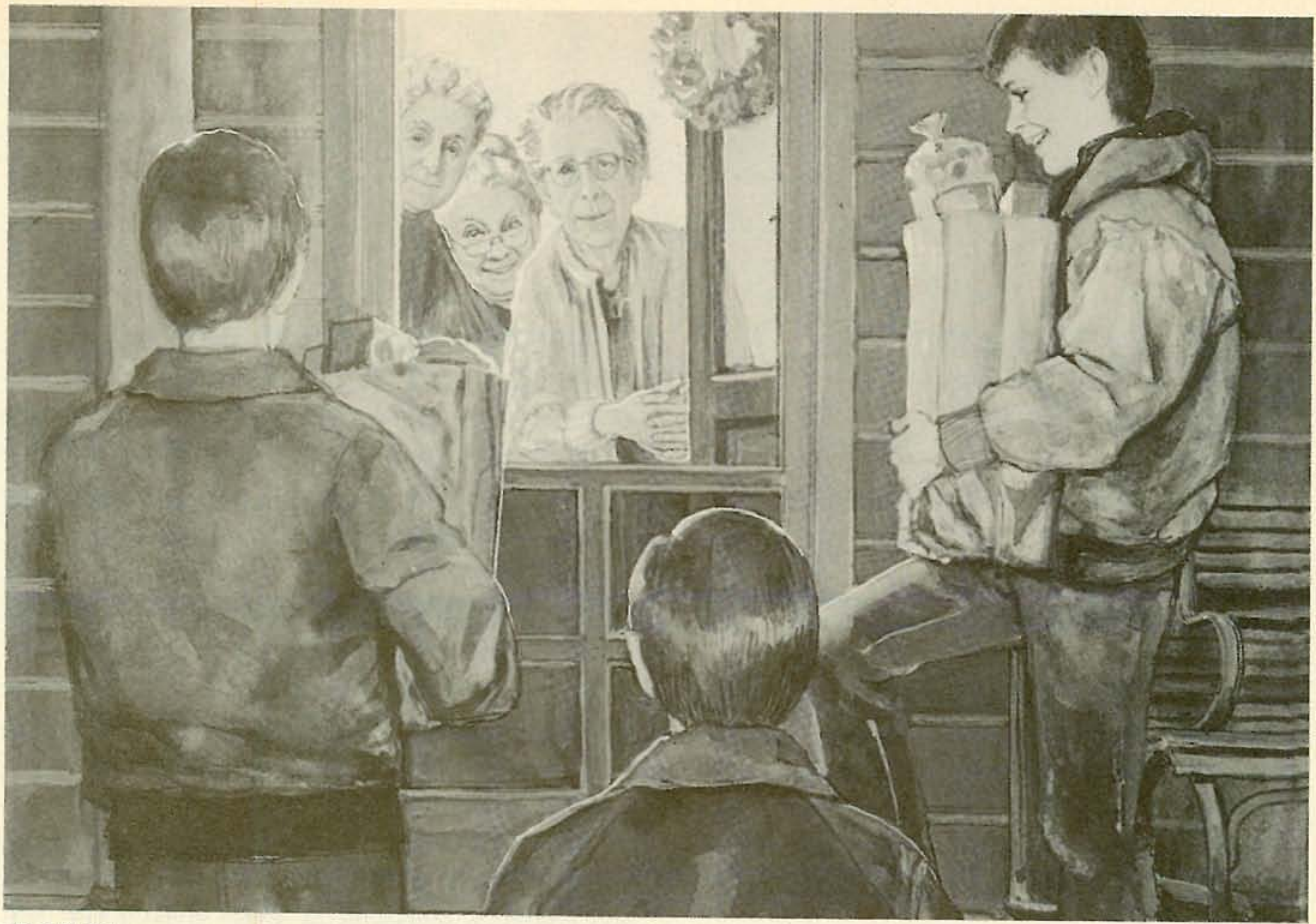


그림: 데일 킬본

소년들의 생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미치게 되었고, 자신들을 위해 모아 왔던 파티 기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데 사용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억될 축복이었다.

스마스 만찬이 확보된 것입니다. 빈 토끼장 문을 닫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따뜻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3세의 소년으로서 자신의 집사 정원회가 크리스마스 정신을 성공적으로 찾게 이끌었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 소년과 그의 동료들은 한 마을에 살았고 그 마을에는 연로한 미망인이 많았습니다. 일 년 내내 이 소년들은 성대한 성탄절 파티를 열고자 계획하고 푼푼이 돈을 모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의 모임을 생각하던 이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장격인 프랭크는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은 자금을 이제까지 계획하던 파티에 쓸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사는 연세가 많은 미망인들을 위해 사용하자고 동료들에게 제의했던 것입니다.

소년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그저 따라

가기만 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안으로 열을 올리게 된 이 소년들은 아주 커다란 통닭과 감자와 채소를 사고 성탄절과 관련이 되는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선물을 가지고 그 미망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언덕 길을 올라 소년들 일행은 마침내 한 외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화음은 잘 맞지 않았지만 열세 살 소년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문힌 밤..." 그러고는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 거룩한 밤에 그 옛날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처럼 아름다웠을 것이며, 박사들이 전한 예물이 이처럼 소중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 훌륭한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중얼거렸고 그 착하고 강한 소년들을 바라보면서는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에 메리 도우브린의 불멸의 시가 제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겨울 추위에 웅크린 누더기 백발 노파,
방금 내린 눈에 젖은 거리를
연로한 걸음 느릿느릿 걸어
건널목에 섰다.

근심 어린 표정에 눈길 한 번 없이
옆을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혼자 외로이 오래도록 기다린다.

거리 아래쪽에서 웃음과 외침이 터져 나온다.
수업이 끝나 해방된 반가움이 터진다.
양떼처럼 쏟아져 나오는 소년들,
하얗게 높이 쌓이는 눈을 보고 환호한다...

[누군가] 옆을 지나다 멈추어 나즈막히 속삭인다.
“건너신다면 도와 드릴게요...”

“애들아, 누군가의 어머니야.
그들 모두 연로하고 기력이 없어 도움이 필요해.
언젠가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멀리 있다면
누군가가 내 어머니에게
손 내밀어 도와주렴.”
“누군가의 어머니”는 머리 숙여 인사했다.
그 날 밤, 그녀는 집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누군가의 아들인 그 훌륭한 소년에게
자비와 영광과 기쁨을 베푸시옵소서!”
 (“누군가의 어머니”)

그 소년들 중 누구도 그 귀중한 순례 여행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시간은 변하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기록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격려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축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오래 전에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제게 와이오밍 주의 스타 벨리에서 성장했던 발렌타인 부장님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곳은 거친 시골이었습니다. 여름은 짧고 금방 지나가지만 겨울은 길고 아주 추웠습니다. 발렌타인 부장님은 소년 시절의 어느 특별한 크리스마스 절기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수확을 마친 후 경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농장으로 가서 하루에 1달러 정도를 받고 일하시곤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하고 나면,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보낼 수 있는 돈은 조금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 계셨던 어느 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들 각자에게 우유를 한 컵씩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컵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우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제 컵을 어머니께로 밀어내면서 ‘엄마, 제 컵을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냐, 난 오늘 밤에 배가 고프지 않단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유를 마시고 잠자러 갔는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발끝으로 걸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그 곳에는 어머니가 마루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은 어머니의 기도에 귀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집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굶주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기도를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소 난처해 하시며 제게 ‘애야, 올라가거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대로 갔으며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나는 냄비 소리와 후라이팬 소리 그리고 음식 냄새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엄마,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애야, 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니?’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후 가족들을 만나 보기 위해 돌아갔을 때, 고향이 된 가드너 감독님은 제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네 가족과 나누었던 어떤 크리스마스 경험을 말해 주겠네. 허드렛 일을 마치고 우리는 저녁을 먹었지. 그리고 나는 불 옆에 앉



그림: 로버트 티 배릿

하나님께서서는 선한 감독으로 하여금 충실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가 가져다 준 음식은 육체와 영을 먹여 주는 것이었다.

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네. 갑자기 나는 “발렌타인 자매님 집에 음식이 전혀 없어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아내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보, 뭐라고?”라고 했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들어와 “불렀어요?”라고 했지.

““아니, 당신을 부른게 아냐. 하지만 내게 말하는 어떤 음성 들었어.”

“그녀는 “무슨 말이었어요?”라고 물었어.”

““발렌타인 자매님 집에 음식이 전혀 없어요라는 말이었어.”

“아내는 “그러면 외투를 입고 발렌타인 자매님 집에 음식을 갖다 드리는 게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했지. 그 캄캄한 겨울 밤에 나는 딸들에게 마구를 채우고 마차에 밀가루 자루와 쇠고기 덩어리와 과일과 새로 구운 빵 덩어리를 실었어. 날씨는 추웠지만 자네 어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아 주고 내가 그 음식을 전해 줄 때 따뜻한 열기가 내 영혼을 가득

채웠네. 하나님께서 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넓게 열어 그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크리스마스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활짝 피게 합니다.
2.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베풀 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3.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어떤 언어로든지

윌리엄 파울리

방학 중에, 나는 배로 러시아의 불가 강을 따라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말일성도 교회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요일에 선실에서 혼자 물론경을 읽기로 계획했었다.

그 배가 여름 관광을 위해서, 한 말일성도 가족에게 임대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계획은 변경되었다. 그 가족은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허락을 얻어, 그 배로 여행하는 몇몇 러시아인 말일성도들을 포함해서 말일성도 여객들을 위하여 예배 일정을 잡았다. 나는 성찬을 축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내가 혼자 성찬을 축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곳에 나 외엔 십대 청소년이 한 명도 없는지 궁금했다. 나는 그렇지 않기를 바랐다.

그 날 아침 늦게 내가 성찬식이 거행될 음악실로 들어갔을 때, 벡타이를 맨 청년들과 정장을 입은 청년들을 보고 나의 불안한 마음은 진정되었다. 나는 성찬 테이블로 쓸만한 것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보았다. 나의 오른쪽으로 식당에서 가져 온 하얀 식탁보가 피아노 의자 위에 펼쳐 있는 것을 보았다. 성찬기가 하얀 린넨 위에 놓여 있었다. 나에게 성찬을 축복하라고 요청한 형제님이 청년 한 명을 소개해 주었다.

“이 청년은 세르게이야. 세르게이가 너와 함께 축복을 할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온 세르게이는 민병대에서 군복부를 막 마친 청년이었다. 그는 지하철에서 두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마침내 침례를 받았다고 했다.

“도브리 딘!” 나는 내가 배운 짧은 러시아어를 연습삼아 말했다.

“도브리 딘” 그가 낄낄거리며 대답했다.

“민야 자붓, 윌리엄.” 나를 소개했다.

“민야 자붓, 세르게이.”

“너 영어할 줄 알아?” 내가 물었다.

“조금.”

그는 오래 사용해서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폈다. 그 종이에선 말일성도 종교 용어의 뜻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마치 예배 의식에서 우리의 역할을 말하려는 듯이 성찬이라는 단어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그는 빵이라는 단어를 가리킨 다음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

“내가?” 그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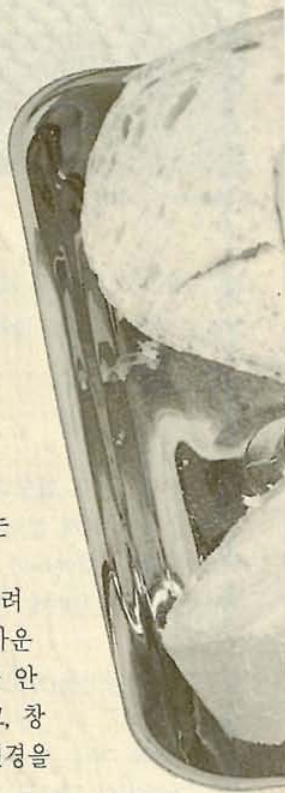
그런 다음 그는 물이라는 단어를 가리킨 다음 나를 가리켰다. 나는 이해했다. 그가 빵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물을 축복할 것이다.

“다.” 나는 그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뜻의 러시아어를 말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라는 찬송가가 울리는 가운데 블라디미르라는 한 청년이 회중을 안으로 인도했다. 방의 커튼이 젖혀졌고, 창문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 시골의 전경을 보았다.

세르게이의 물론경은 깨끗이 잘 사용되어 있었다. 그는 성찬 기도문이 있는 쪽을 훑어 보았다.

우리는 서서 집에서 만든 러시아 효모 빵을 뜯었다. 나는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회중의 받은 러시아어로, 나머지 받은 영어로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아무도 찬송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노래를 불렀다. 나는 러시아어와 영어의 혼합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의



음성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내고 있는 듯한 감명을 받았다.

찬송가가 끝났을 때, 나는 세르게이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배가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중이 머리를 숙였고 세르게이가 러시아어로 기도문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슴에서 타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왔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러나 똑같은 영을 느끼고 있는 세르게이와 나, 두 사람이 집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 배 위에 있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단어를 명백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이해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엄숙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물을 닦은 후에, 세르게이와 함께 일어섰다. 우리는

빵이 담긴 성찬기를 회중에게 전달할 세 명의 어린 아론 신권 형제들에게 주었다.

몇 분 후, 나는 여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신에 차서 기도문을 영어로 낭독하면서 물을 축복했다. 나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멘이라고 한 뒤 일어선서 물이 담긴 성찬기를 전할 때 나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 날, 세르게이와 나는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였다. 우리는 주님의 사망과 희생 직전에 그분이 제정하신 상징을 축복했다. 세르게이는 러시아어로 축복했고 나는 영어로 축복했지만, 그 곳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던 언어는 영이었다. □



드록 로 영혼 간지

МОРОНИИ 3:4-6:4

4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и слышали священников и учителей в согласии с дарами и призываниями Бога к человеку, и они послащали их словом Духа Святого, Который пребывал в них.

ГЛАВА 4.

Образ кричащего в слезах. Образ, по которому старейшины и священники причащают. Плотью и Кровью Христовой в церкви; и они служили согласно с заповедями Христа; правильный обряд; и старейшина или священник так его совершал: 2 Они вставали на колени со всей церковью и молились за него, Иисуса Христа, благодать и освятить себя.

ГЛАВА 6.

Условия и образ крещения. И ныне я вхожу в воду за вас, чтобы вы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прощение от Бога, и чтобы вы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дар Святого Духа.

Вот, они брали чашу и говорили: 2 О Боже, Отец Вечный, мы просим Тебя во имя Сына Твоего, Иисуса Христа, благословить и освятить сие вино для душ всех тех, которые пьют его, дабы могли они сделать сие в память Крови Сына Твоего,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олита за них; дабы могли они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пред Тобой, о Боже, Отец Вечный, что всегда помнит Его, дабы мог Дух Его пребывать с ними. Аминь.



성전 출입구에서

데니스 레이

유 타 주 바운티폴 성전을 일반에게 공개하던 날, 우리 가족은 큰 기대를 가지고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내자는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 위에 덧신을 신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빗길과 눈 속을 걸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성전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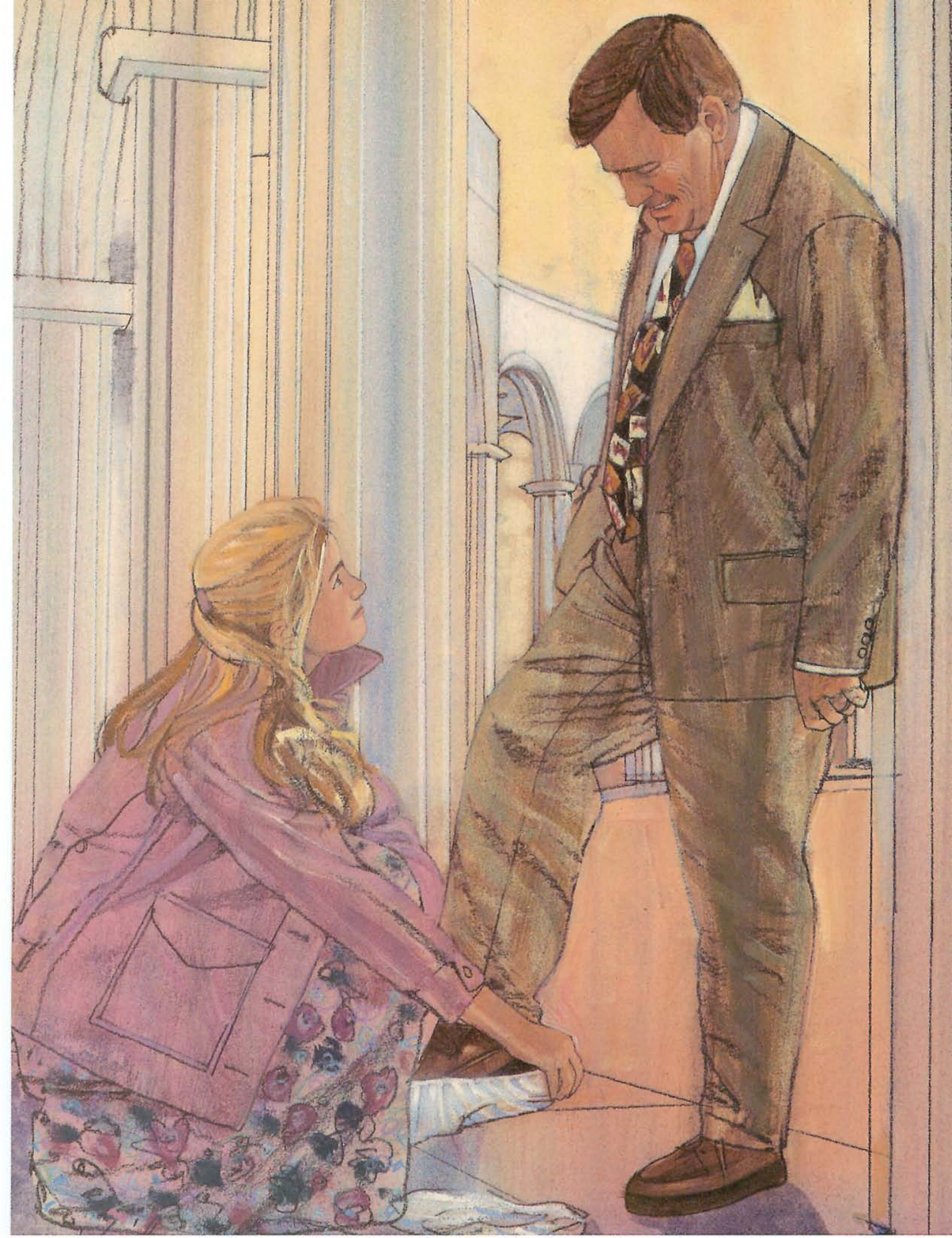
나는 덧신은 우리가 스스로 신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출입구에 들어서서 보니, 자원 봉사자로 인근 스테이크에서 온 청년 청년들이 방문객들의 신발 위에 덧신을 신겨 주고 있었다. 이를 본 나는 놀랐다. 나는 한 짚은 자매가 시키는 대로 발을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다른 발을 들어 올렸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추운 날씨, 더러운 신발, 무릎 꿇은 그녀의 불편한 자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봉사는 유쾌한 일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 자매가 나에게 덧신을 신겨 준 후 나는 가볍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나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서도 그녀의 태도는 변함없이 진실하였고 상냥하였으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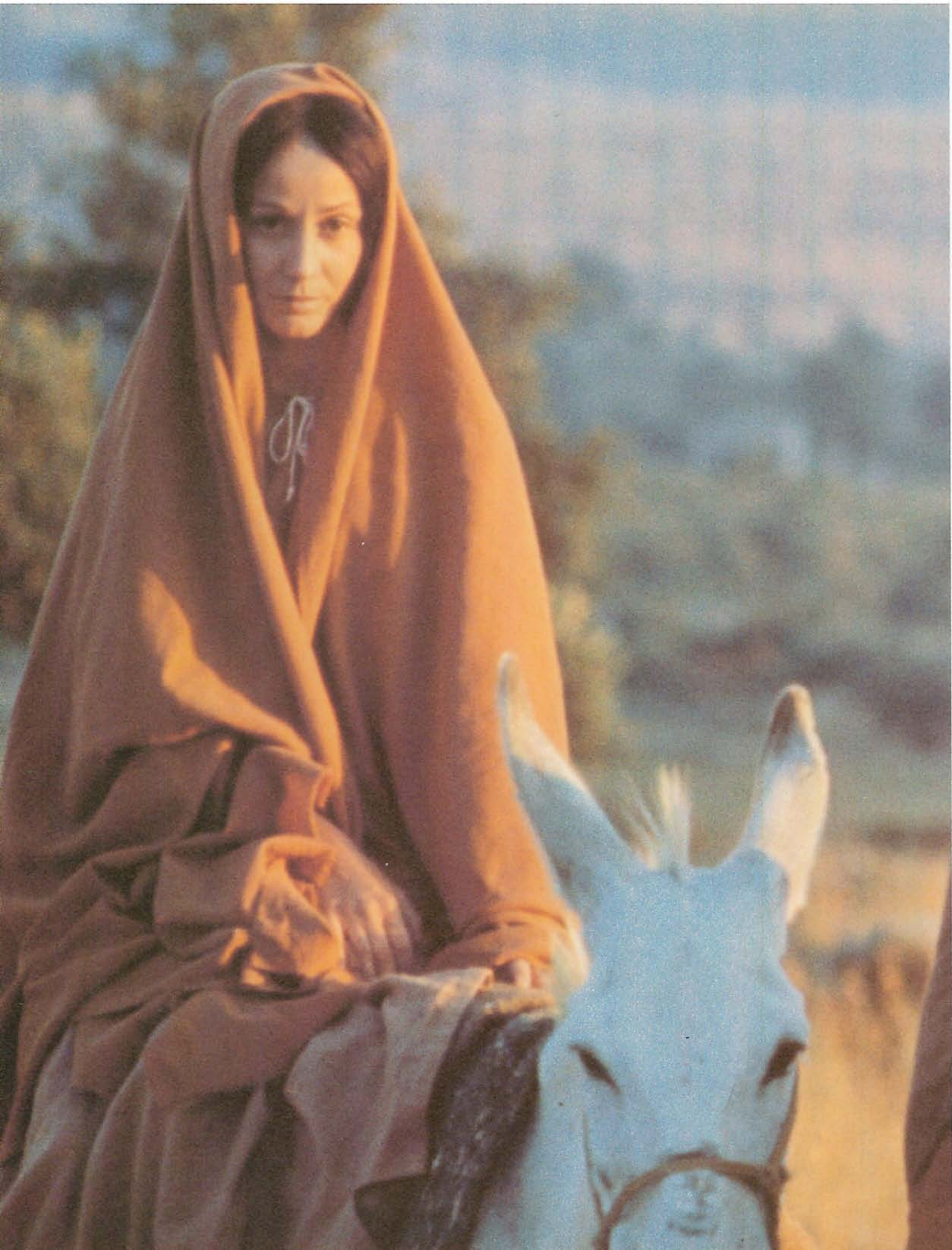
나는 그 자매의 봉사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러자 갑자기

나의 마음은 어떤 감미로운 느낌으로 충만해졌다. 만약 필멸의 육신을 지니신 메시야가 오늘 이곳에 계신다고 가정한다면, 그분 역시 사심 없는 조용한 태도로 봉사하시지 않겠는가? 즉,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성스러운 봉사를 하시지 않겠는가?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나는 구세주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 구세주께서는 가장 고결하면서 성스러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겹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었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던가?

성전 내를 두루 돌아보는 동안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 성전은 아름다웠으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성전 출입구에서의 봉사 행위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직분에서 해임되었다. 해임된 후, 한동안 나는 주님께서 다음에 내게 주실 직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분일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조용하면서 친절을 요하는 그런 직분일까. 그러나 나는 어떤 직분이든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무릎을 꿇고 봉사를 하든, 그리스도 역시 한때는 우리 모두를 위해 무릎을 꿇고 봉사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





크리스마스는 상점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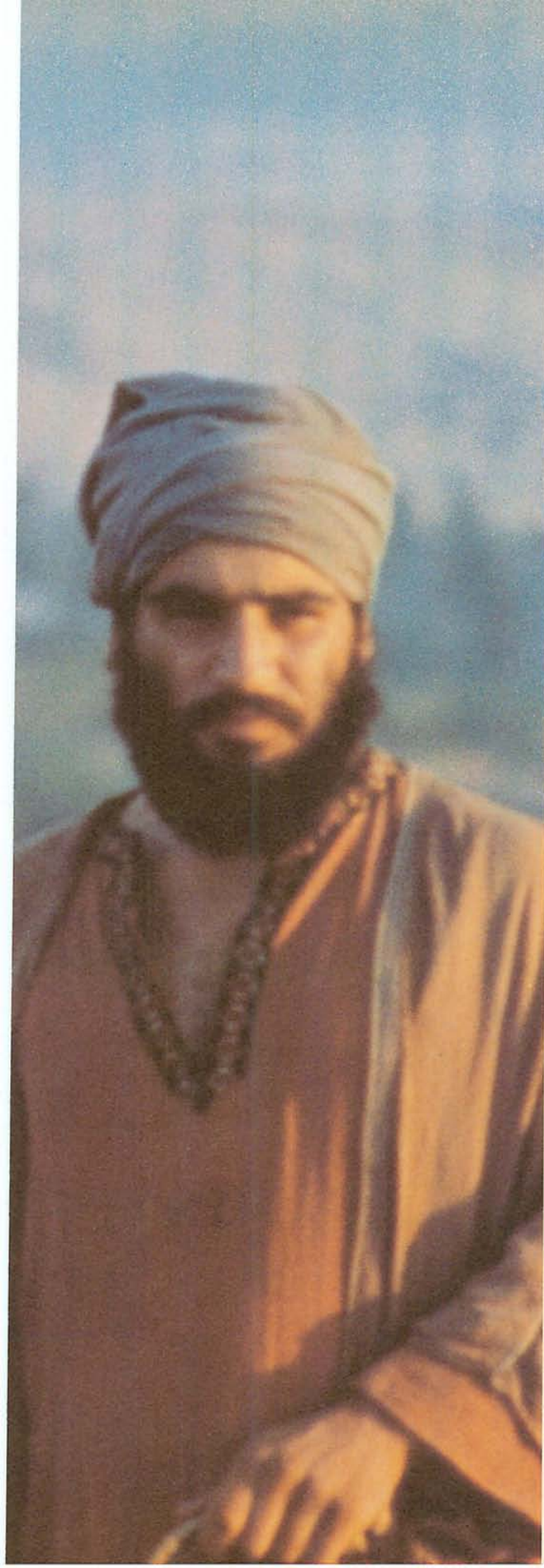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상점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해마다 조금씩 의미를 더해간다는 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그 저녁에 대한 경전 이야기를 몇 번을 읽었던 간에 우리는 항상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한 두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거룩한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한 한 가지를 강조하는 데 주저합니다.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받는 인상은 이것이 심한 빈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사관에 방이 없다”고 하지 않고 “사관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누가복음 2:7)고 기록했을 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옷돈을 주고 방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중요 인사였거나 부자였다면 사관들마다 방이 모두 들어찬 그 시기에도 숙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역 성경에서 역시 사관에서 그들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러라(요셉 스미스역, 누가복음 2:7 참조)고 했을 때 그들이 유력한 사람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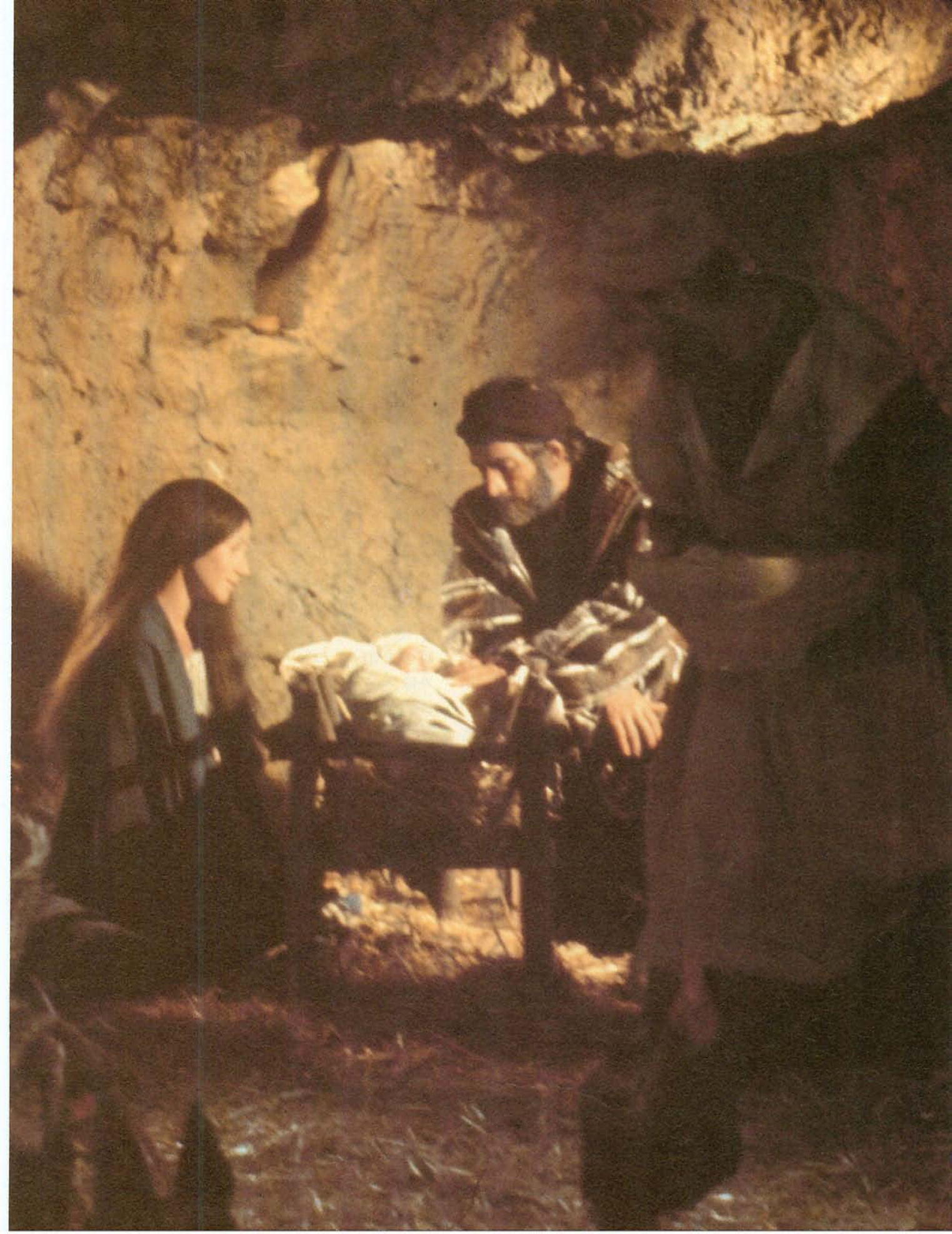
우리는 그 기록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가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아기를 낳은 후 결례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는 어린 양 대신 매우 궁핍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님이 모세의 율법에서 허락하신 대용물(레위기 12:8 참조)인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갖고 와서 그들에게 약간의 명성과 부가 주어진 것은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먼 곳, 아마 페르시아로 여겨지는 곳에서 최소한 수백 킬로미터 정도를 여행해 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밤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별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출발하지 않았다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실제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young child)”였으며 그 가족들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11)

어쩌면 이것은 성탄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차이점을 제공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물건을 사고 만들고 포장하고 장식하는 일은 그러한 선물을 주도록 동기를 준 아기 예수(와 그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개인적인 시간과 조금만이라도 구별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졌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물 역시 해마다 또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이 잘 아는 사실로써,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보화나 포장 꾸러미나 이 세상의 물건이 없었던, 지극히 수수하여 궁핍하기조차 했던 어느 밤의 광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유일하고 거룩하며 꾸밈 없는 대상인 베들레헴의 아기를 볼 때만 우리는 선물을 주는 것이 왜 그토록 적절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선언에 “크게 무서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소식에 기뻐하였으며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 최초로 기록된 증인들이 되었다. (누가복음 2:8~16 참조)

아버지로서 저는 강하고 조용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양부로 선택되기에 지상의 어떤 남자보다 틀림없이 더 합당했으며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요셉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을 가르치도록 모든 남자가운데서 선택 받은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서를 가르쳤던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목공소 안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준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제 첫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으로서 막 1학년을 마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학교에 다녔으며 둘 다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집을 벌기 위해 캠퍼스 밖의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밧데리가 반쯤 나간 작은 폭스바겐을 몰고 다녔는데 새 것(폭스바겐이나 밧데리)을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별한 밤이 다가옴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아내에게 깨끗한 시트와 소독된 기구와 주의 깊은 간호사와 우리의 첫 아들을 낳도록 해 줄 숙련된 의사를 준비시켜 주기 위해 이 세상에서 어떤 올바른 일이든지 다하고 우리의 장래를 바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나 아기가 일류 사립 의료 센터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 주기 위해 바로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가졌던) 그러한 감정을 요셉이 친구나 친척도 보이지 않고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는 타향 거리를 걷어가며 느꼈을 감정과 비교합니다. 마리아는 “해산”을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사람들의 숙소에서 떨어진, 외롭고 눈에 띄지 않는, 동물들로 가득 찬 동굴 같은 마굿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저는 요셉이 동물들의 똥과 찌꺼기를 치우며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깨끗한 쪼단을 찾고 동물들을 제지시키기 위해 서둘면서 쓰라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의문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기를 낳는 데 이보다 더 비위생적이고 질병이 득실거리며 비루한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왕에게 어울리는 장소일까?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처럼 불결하고 생소한 장소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4)로 들어가도록 요구 받아야 하는가? 그녀가 좀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러나 저는 요셉이 불평을 하지 않았으며 마리아도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가능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이 부모는 그들에게 오는 이 아기가 모든 인간의 고통과 실망을 겪게 될 것임을 그가 세상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필멸의 생을 시작할 때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남으로써 그는 어려운 처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인 마리아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자신의 인생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천사를 맞이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누가복음 1:28) 다음과 같이 순수함과 성숙함을 보여 주는 대담에서 그녀의 영성과 준비정도가 드러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들이 살아 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자궁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느끼며 아기를 낳을 때의 느낌을 이해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아버지들은 옆에 서서 지켜 보지만 어머니들은 느끼며 결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쓴 베들레헴의 그 거룩한 밤에 대한 조심스런 기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이 차서
“[그녀의]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누가복음 2:6~7)

이 간단한 대명사는 그 아기 다음으로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당당한 여왕이고 어머니 중 어머니이며 놀라운 모든 극적인 순간의 주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또한 이 대명사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제외하고는 그녀가 완전히 혼자였음을 말해 줍니다.

저는 아기에게는 귀한 존재인 이 젊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기를 출산하는 동안 자신의 어머니나 아주머니나 언니나 친구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에서는 분명히 이처럼 아들을 낳을 때는 모두 산파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주고 이마를 식혀 주며 출산한 후 그녀를 뽀송뽀송하고 시원한 린넨 위에서 쉬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디. 그녀는 전혀 경험이 없는 요셉의 도움만으로 혼자서 만아들을 낳았으며 여행 길에 잊지 않고 가져 온 작은 천으로 아기를 싸서 아마도 건초로 만든 베개 위에 뉘었을 것입니다.

그 때 장막의 양편에서는 천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4) 그러나 하늘의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라 이름 지은 아기, 이들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전 인류 역사의 이 핵심적인 순간에 바로 그러한 목적

을 위해 하늘에 나타난 새로운 별 하나가 한 지점을 밝혔 습니다. 가난한 젊은 목수와 아름다운 처녀 어머니와 그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움을 말하지 못하는 마굿간의 조용한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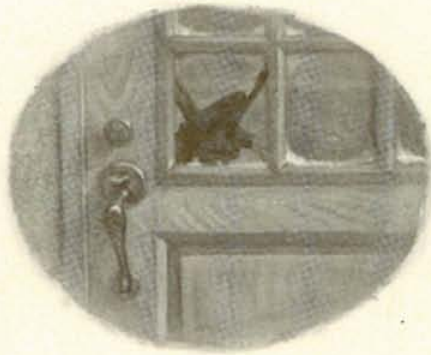
곧 목자들이 도착하였으며 훗날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장난감이나 트리나 화려한 것 들은 없었으며 단지 아기와 그 가족만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바로 이 아기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내게 영생되 시니 왕께 치하함시다”(찬송가, 133장)

아마 예수님은 그러한 선물과 자신의 탄생과 유년기의 상황을 회상하시면서 또 모든 해의 왕국의 영혼들에게 요구될 깨끗함과 신앙과 참된 겸손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사랑했던 어린이들의 눈(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항상 가장 잘 보는 눈)을 들여다 보시며 여러 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

모든 시대에 있어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어린이들의 노래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감정에 북받쳐 부릅니다.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 없어
아름다운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내려 보는데
그 어리신 예수 구유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언제나 계시
무한하신 사랑 늘 베푸시고
은 세상 어린이 다 품어 주사
주 품 안에 모여 살게 하소서.
(찬송가, 131장) □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두고 우리 가정은 다소 들뜬 분위기였다. 하이드는 엄마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라 여념이 없는 동안, 에린은 창문에 걸친 오색 영롱한 등불을 보는 데 넋을 잃고 있었다. 나는 오늘 저녁 존의 회사에서 마련한 부부 동반 저녁 파티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존과 나는 딸 아이들을 이웃에게 잠시 맡겨 놓고 우리 갈 길로 갔다. 파티장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축복들에 관해 생각하였다.

파티는 대성황이었고 성공리에 끝났다. 우리가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자정이 훨씬 지난 때였다. 존이 앞서 나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다. 나는 잠든 두 딸 아이에게 초겨울의 쌀쌀한 바람을 쐬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 주었다.

별안간 존이 뛰어 오면서 “도둑이 들었었다!”고 소리쳤다. 에린을 안고 있던 나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온 집안을 확인해 보았을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도둑들이 모두 털어 간 것이다. 심지어는 십일조 영수증과 축복사의 축복문까지 가져갔다. 우리는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난감하기만 하였다.

우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행사를 준비하는 기쁨을 맛보는 대신, 추위와 허탈감에 힘겨워 했다. 선물은 다시 마련할 수도 있다지만 선물과 포장에 담겨 있는 사

그들은 성탄절 정신까지 훔칠 수는 없었다.

데비 뜻처

랑과 정성은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다. 그냥 집 안에서 구세주의 탄생만을 축하하며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보내기로 결정했다.

일요일이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일요일 저녁, 존과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도둑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

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조그만 촛불들이 깜박거리는 가운데 25명의 워드 회원들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 주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의 쓰라린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전화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수화기를 드니 어떻게 도와 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이웃의 인사말이었다. 그날 밤 우리에게 걸려 온 수많은 위로 전화 중 첫번째 인사였다. 우리는 에린이 좋아하는 깜박이등을 켰다.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크리스마스 축하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오전 11시쯤 되자, 교회 회원들이 선물과 음식을 들고 잇달아 우리 집을 방문했다. 돈으로 선물한 자매도 있었다. 후에 알고 보니 우리가 도둑 맞은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었다. 보이 스카우트 와서 도움을 주고 갔다. 이웃 스테이크의 회원들도 우리 소식을 듣고 산타클로스를 보냈다. 하이드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사랑과 도움의 행렬은 자정 때까지 계속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잠자리에 들 때, 우리 마음은 이웃들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 있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정신의 모범으로 우리의 악몽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제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



“천사님들은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데비 오를리안

나는 남부 캘리포니아 주에서 늘 따스하고 푸른 겨울을 보냈었다. 그런데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의 크리스마스는 동화책에 나오는 한 장면과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온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원에는 소나무가 있었으며, 별빛은 몹시 찬란하게 비치어 손을 뻗치면 하늘이 곧 닿을 것처럼 보였다.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와 동반자 펠스 자매님은 사뭇 평화로운 기분으로 간이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선교사 모임이 오후 7시에 끝났으므로 우리는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식사나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그 때 갑자기 식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스무 명 가량의 손님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모두 무대 의상을 입고 있었다. 한 사람은 요셉과 같은 옷차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목자, 동방 박사, 날개 달린 천사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지방에서 크리스마스 연극 공연을 막 마치고 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웃고 농담하며 먹을 음식을 사들고 각자 자리를 잡았다.

얼마 후, 또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들과 동행은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낡고 헤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먹을 음식을 집어 담은 후 자리를 잡으러 여기 저기 옮겨 다녔다. 크리스마스 연극 단원들

사이에 자리 하나가 비어 있음을 보고, 동방 박사 차림을 한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으려 했다. 그러다가 그는 들고 있는 쟁반을 너무 기울인 바람에 그만 음료수 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연극 단원들은 낄낄 웃어댔다. 그는 뒤로 물러나와 우리 옆에 식탁이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옮겨 와 앉았다. 고개를 떨구어 음식도 보지 않고 음료수가 옆질러진 땅바닥만을 몇 번 쳐다보았다. 나는 그 음식이 가난한 그에게는 특별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옆질러진 음료수에 그는 몹시 실망한 듯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나의 마음도 아팠다. 나는 펠스 자매님에게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주인이 음료수를 무료로 줄 거예요.” 펠스 자매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 직접 카운터로 걸어갔다.

펠스 자매님이 걸어가는 동안, 연극 단원들은 모두 그녀의 선교사 명찰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중 몇 명은 명찰을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기도 했다.

얼마 후, 식당 종업원이 옆질러진 음료를 닦아냈고 펠스 자매님은 새로운 청량 음료수를 가져다



그 남자에게 건네 주었다. 그는 음료수를 쳐다보더니 곧 고개를 돌려 펠스 자매님과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는 감격하여 목메인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는 계속해서, 나이는 54세이며 한때 선원이었고, 바로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은 그의 가족들도 모두 떠나 버려 지금은 혼자라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당신들은 무엇 하는 분들이요?” 하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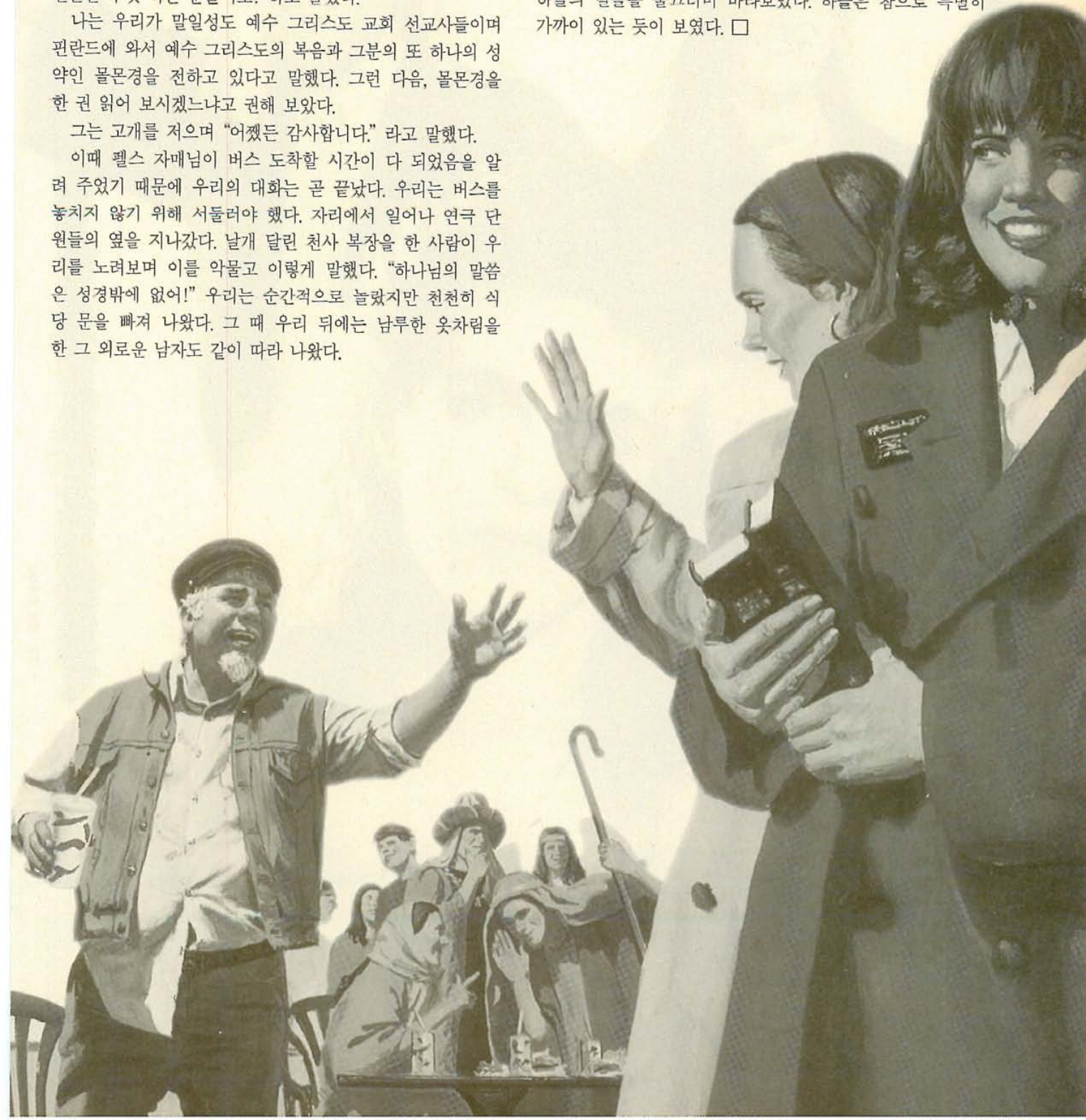
나는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들이며 핀란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물몬경을 한 권 읽어 보시겠느냐고 권해 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어쨌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때 펠스 자매님이 버스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곧 끝났다. 우리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연극 단원들의 옆을 지나갔다. 날개 달린 천사 복장을 한 사람이 우리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 우리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천천히 식당 문을 빠져 나왔다. 그 때 우리 뒤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그 외로운 남자도 같이 따라 나왔다.

“천사님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물었다. 당황한 우리는 뒤돌아 서서 식당 안 연극 단원들 있는 쪽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 그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시 우리에게 “천사님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식당에서 멀어지면서 나는 하늘의 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늘은 참으로 특별히 가까이 있는 듯이 보였다. □





나는 크리스마스를 싫어했어요.

패트리샤 알 로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임

나는 백화점 창문에 그려진 유쾌한 모습의 늙은 난쟁이를 노려보며 “나는 산타클로스가 싫어요”라고 소리쳤다.

어머니께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나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넌 분명히 크리스마스 영을 지녔잖니.”

나는 나의 느낌을 설명할 적절한 말을 떠올리면서 서둘러 어머니와 함께 차로 향했다. 나는 쇼핑 가방을 차의 트렁크에 넣으면서 말했다. “저는 산타클로스나 금속 장식품이나 그리고 다른 모든 들떠 있기만 한 크리스마스에는 신물이 난다구요. 제 말은, 우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상업화되어 가고 있지.”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변화가를 지나가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크리스마스 기부금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았다. “저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예요.” 나는 부지중에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즈음에만 느끼는 그들의 양심의 거리낌이나, 낡은 물건들을 기부하며 자선이라 여기는 방식이 싫어요. 왜 사람들은 일 년 내내 관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시작하기 위한 좋은 시기란다.”고 하시며 어머니께서는 웃으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관심이 없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벌써 오래 전부터, 그리고 어머니와 내가 차를 타고 나올 때에 이미 나는 단순히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만으로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으리라고 이미 다짐했었다. 나는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처럼

위선적이지 않을 것이며, 구세주의 탄생을 위해서라면 4월에 경축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상을 치우고 숙제를 하려고 앉았는데 탐이 말했다. “누나, 산수 문제 푸는 것 좀 도와주겠어?”

“나도 해야 할 숙제가 있단 말야.” 라고 나는 탐을 나무랐다.

“누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구.” 탐이 구실을 댔을 때 나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탐에게 크리스마스는 나와 상관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 봐.”

“누나가 착해지려면 엄청난 축복으로도 부족할 거야.”라고 말했다.

“알았다. 이제 그만들 하렴.” 어머니의 엄한 음성이 들려왔다. “탐, 내가 도와 주마. 너의 누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슨 유감이 있나 보다.”

나는 마음이 점점 상하여 숙제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왜 보다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닌 나쁜 감정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는 세상의 다른 편의 사람들이 굶주리며 괴로워할 때, 떠들썩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그런 위선자는 아니었다.

바로 그 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께서 나를 바라보고서 천천히 문가로 가셨다. 어머니의 숨막히게 놀라는 모습에 나머지 가족들도 깜짝 놀랐다.

문 밖에는 우리의 가정 복음 교사 둘이 양치기 복장으로 서 계셨다. 그들은 우리 가족 모두가 그들 곁으로 모일 때까

지 기다렸다가 그 중의 한 양치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곳에 잠시 둘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간결하고도 진실된 그분들의 메시지에 나는 매우 감동되었다. 나의 입술이 떨려 오자 나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나는 더 이상 듣지를 못했다. 나는 위선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생각하기에 너무도 바빴다. 나는 기꺼이 내 자신을 보다 나아지게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었는가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불평을 토로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일 년 중의 한때나마 관대하였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못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기적을 볼 것입니다.” 다른 양치기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들이 적막 가운데

서 그들의 훌륭한 메시지를 숙고하도록 남겨 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이 경이로운 사건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헛기침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제가 들려주고 싶은 제 자신의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포옹을 하였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였던 모든 것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이런 것이 어머니가 되는 일부분일 게다.”

나는 의기 양양하게 웃고 있는 탐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너에게 사과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일 거야, 탐.” 하며 나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이 오늘 밤 바뀌었다는 것을 너는 믿으려 하지 않을 거야.” 탐은 어깨 짓을 해 보이며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나는 그가 당황해서 그의 콧볼이 붉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그를 뒤따라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탐, 내가 너의 산수 숙제를 도와줄까?” □



“더욱 신성하고 거룩함”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29)

복음은 우리의 구세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따르고 더욱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니파이이서 25:29) 우리가 금년도에 강조해 온 기도조의 찬송가 “거룩함도 더욱”(찬송가, 60장)은 “더욱 거룩함”의 간청으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거룩함은 구세주의 속죄로 가능해진 선물이다.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계명들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속죄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성신의 임재를 가능케 하였다.

현신적이고, 그리스도 같은 노력은 거룩함으로 인도함

거룩하게 되는 것은 회개와 자제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한번에 일치된 생각과 행동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 우리의 인생이 그의 삶을 반영하기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언젠가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의 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상징이 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15)…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의미 있는 표현의 상징이,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선포하는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리아호나, 1995년 4월 호, 4, 7쪽)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달리 노

로부리는 이름의 조용한 성품의 연로하신 자매가 있다. 달리 자매는 1984년 남아프리카의 소웨토에서 교회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계속 자신의 부름에 충실해 왔다. 그녀는 또한 수십 명의 고아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양육시켰다.

달리 자매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녀는 아들의 차를 들 수 있도록 그녀의 집 한쪽에 창고를 지었다. 하지만 그 창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80년도에 소웨토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례식을 위해 요하네스버그로 여행하기가 어려웠는데, 달리 자매와 그의 아들은 신권 지도자들의 승낙을 얻어 창고 안에 침례탕을 만들었고 지부의 많은 회원들이 그 곳에서 침례를 받았다.

현재 달리 자매는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녀의 신앙과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고, 그런 그

녀에게 주님은 많은 축복을 해 주었다.

주님의 계율 “거룩한 곳에 서 있음”

주님은, 그의 계율은 거룩한 곳에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45:32 참조) 신성한 장소란 성전이나 다른 장소도 될 수가 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당, 스테이크 센터 및 성전은 성스럽습니다. 그것들은 집이라는, 교회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단체, 그리고 가장 신성한 관계인 가족에게 기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화될 수 있음, 234~35쪽)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성신의 성스러운 영향력이 함께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집을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그리고 질서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리와 성약 88:119) 설령 우리가 불완전하여 벽차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성을 고무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인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 구세주와 같이 되는 것이다.

- 거룩함, 그 자체의 보답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



그림: 로널드 마저



적 이 친구 가 됨

요셉 스미스는 적들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종종 그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

듀엔 씨 노울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영의 영향력으로, 불신자의 편견이 바뀌어 평화의 복음의 선함을 깨닫게 된 사건들을 목격해 왔다. 마음과 가슴이 열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간증에 감동되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주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했다. 요셉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영향력은 그의 간증과 더불어 종종 그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노여움까지도 가시게 하고, 그에게 호의를 갖도록 바꾸어 놓았다.

예언자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다음의 단편적인 사건들은 “한 번이라도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장 맹렬한 적들조차 대개 압도되었다.”¹ 라는 팔리 피 프렛의 말을 입증해 준다.

왼쪽: 1838년 10월에 여기 교회 영화에 묘사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속아서 정부 관리의 손에 넘겨졌다. 당시 4개월 동안 수감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는 적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그의 편에 선 법률

.....

1830년 6월, 예언자는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기 위해 뉴욕 주 콜스빌로 갔다. 그는 그 곳에 도착해서 그 지역의 신도들이 친구들을 침례받도록 준비시켜 왔음을 발견했다. 침례를 베푼 후 새로운 회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날 저녁에 모임을 갖기로 계획하였다.

예정된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요셉은 “물론 경을 전파함으로써 그 지방의 치안을 문란하게 하고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 경관은 예언자를 분명하게 알게 된 후 마음이 바뀌었다.

“그 경관은 내가 체포된 직후 나에게 영장을 발부한 사람들이 나를 폭도들의 손에 넘겨 주려고 하며 폭도들은 지금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자신이 이야기 들었던 그런 종류의 사

위쪽: 요셉이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무장한 남자들이 와서 그를 체포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소개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와서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다정한 태도는 그들에게 그가 범죄자도 위선자도 아님을 확신하게 해 주었다.



한 영국인 개종자는 요셉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폭도 중 하나로
여겨지는 남자가 너무나 감동되어 다시는 물몬들을 대적해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을 전했다.

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로부터 나를 구하겠다고 결
심했다는고 말했다.”²

그 경관은 죄수를 범정으로 데리고 갈 책임이 있었지만
자신의 약속을 지켜 요셉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했다. 시내
를 벗어나자 폭도들이 중도에서 경관의 마차를 둘러쌌다.
그 경관은 폭도들이 요셉을 습격하기 전에 말을 채찍질하
여 그들을 지나쳐 감으로써 폭도들의 시도를 저지했다.

그날 밤, 그들 두 사람은 선술집에 머물렀다. 그 경관은
요셉에게 침대를 주고 자신은 발을 문쪽에 두고 장전된

머스켓총을 옆에 둔 채로 바닥에 누워 잤다. 요셉은 “우리
가 불법적인 방해로 받는다면 그는 나를 위해 싸울 것이
며 힘 닿는 한 나를 지켜 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³

다음 날, 요셉은 석방되었으며 그와 그 경관은 친구로
헤어졌다.

군대의 조치

1834년 봄에 시온 진영으로 알려진 200여 명의 장로들
이 미주리 주민들에 의해 잭슨 군에 있는 집에서 내어 쫓
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부
터 90마일을 행군해 갔다. 구조대를 공격하려는 미주리 주
주민의 계획은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좌절되었다.

이틀 후, 폭도들의 대장인 코로넬 스크스와 다른 폭도
들은 격렬한 폭풍우 때문에 스그러들어서 시온 진영의 의
도를 알기 위해 진영의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요셉은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잭슨 군의 성도들이 겪는 고
통과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박해에 대해 이야기했
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도울 의도 외엔 그 누구도 괴롭힐 의도가 없으며 우리를
둘러싼 흉악한 소문은 거짓으로써, 우리가 파멸되기를 바
라는 적들이 유포시킨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장
황한 이야기를 끝냈을 때 영이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동정심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
했으며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에게 대한 적개심을 완화
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가 받은 고통과 박해에 대해 들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렸
으며 우리의 의도가 선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그들
은 사람들에게 나가 그러한 적개심을 완화시키기 위해 끈
기있게 노력했습니다.”⁴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838년 8
월 6일의 선거일에 데이비스 군의 중심지인 갤러턴에서
미주리 주에서의 성도 축출을 가속화시킨 사건이 일어났
다. 성도들이 투표하도록 허락 받지 못하였을 때 난투극이
벌어졌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요셉 역시 그 난투

극 자리에 없었지만 그가 투표소에서 일곱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며칠 후, 요셉이 부모님의 집에 있을 때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여덟 명의 관리들이 들어와서 요셉의 어머니에게 “조 스미스와 모든 몰몬들”을 죽일 것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일컬어지는 그 시각에 아들이 데이비스 군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게다가 여러분이 그를 본다면 그를 죽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요셉의 어머니는 “신사 여러분,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만나게 해 드리죠.”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을 보듯이 그를 응시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 쪽으로 걸어들어와 자신이 범죄자이기엔 커녕 위선자도 아님을 확신하게 하는 태도로 각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앉아서 그들에게 교회의... 목적과 행적 그리고 처음부터 적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어떤 형제라도 법을 어겼다면 다른 누군가가 괴로움을 겪기 전에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들과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어머니, 전 지금 집으로 가야겠어요. 엠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 때 그 사람들 중 두 명이 별떡 일어나서 그가 혼자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자기들이 함께 가면서 그를 보호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은 함께 떠났으며 그들이 없는 동안 나는 우연히 문쪽에 남아 있던 그 관리들이 다음과 같이 주고 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첫번째 관리. ‘자넨 스미스와 악수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나는 이제껏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두 번째 관리. ‘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전혀 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았어.’

“세 번째 관리. ‘다시는 조 스미스나 “몰몬들”을 죽이기 위해 오지 않겠어.’

“첫번째 관리. ‘이번이 이런 곳에 오는 마지막 기회일 거야. 난 그 “몰몬” 예언자보다 더 무죄하고 순결한 모습을 지닌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두 번째 관리. ‘그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야. 의심할 여지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굴지 않을 거야. 그들을 납득시킬 거야.’

“요셉과 함께 집으로 갔던 사람들은 자기 휘하의 민병대를 해산시켜서 집으로 보낼 것을 약속했으며 그대로 했다.”⁵

감옥에서 복음을 전함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거짓말은 계속 퍼져 나갔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늘어나는 편견과 싸웠는데 1838년 10월에 그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속아서 정부 관리들의 손에 넘겨졌다.

요셉과 교회 형제들은 결국 미주리 주 리치먼드에서 재판을 받고 4개월 동안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다. 마침내 1839년 4월초, 요셉은 또 다른 재판을 받기 위해 갤러틴으로 옮겨졌다. 함께 수감되었던 알렉산더 맥레이는 그 재판 중 한 휴회 시간 동안 요셉이 간수들에게 우정어린 행동을 했던 것을 기록했다.

맥레이는 계속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때부터 우리가 떠날 때까지 간수들은 정부 관리들이 믿기 어려운 정도로 우리에게 친절해서 자주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판사, 변호사 등과 함께 첫번째 테이블에 앉게 되었으며 잠자리는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부드러운 침대로써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번도 누려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⁶

그들의 법정 변호사였던 피터 에이치 버넷은 이렇게 기록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리버티로 돌아가기 직전에 나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완전하게 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 5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조금의 위험도 없이 무방비로 그의 적들 사이를 지나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⁷

갤러틴에서 합법적인 소송을 마친 후 (분명히 죄수들의 무죄를 믿었던) 그 보안관은 요셉과 동료들에게 탈출할



카테지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사진 가운데)은 너무나 힘있게 말씀을 전했으므로 간수 중 여러 사람이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기회를 포착하여 주 경계선을 넘어 일리노이 주로 갔다.⁸

그로부터 5년 뒤인 1844년 6월 18일, 요셉이 순교당하고 폭도들이 동요를 일으키기 9일 전에 요셉은 대중들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했다. 다음과 같이 영국인 개종자인 찰스 램버트가 묘사했던 청중 속의 남자는 회개한 폭도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예언자가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힘찬 설교였습니다. 내 뒤에 어떤 키 큰 남자가 서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자 그는 다시는 결코 물몬들을 대적해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⁹

1844년 6월 24일에 요셉 스미스는 반역죄로 그를 고소하기 위해 찾아온 정부 관리들에게 둘러싸였다. 그 날 그와 동료들은 카테지로 압송되어 갔다. 요셉과 동료 죄수들이 카테지 감옥의 간수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간수들의 반응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교회 회원으로서 그것을 목격했던 댄 존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돌아가며 차례대로 간수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 중 여러 명은 우리들의 무죄를 믿게 되어 감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해직되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폭도들의 이야기에 속았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들은 폭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양갈음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한 것을 인정할 정도로 우리의 간증을 믿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들이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도록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¹⁰

순교한 지 이틀 후, 존스 형제는 나부에 있는 요셉의 집에서 관에 들어 있는 요셉과 하이람의 시신을 보고 있었다. 후에 그는 그 때 “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감옥의 최창살 사이로 상냥하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잠깐 보았던, 의심할 바 없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유덕했던 두 사람”¹¹을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만일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를 죽였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위대한 영과 우정을 믿게 했을 것이며 의심할 바 없이 그들 중 몇몇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것이다.

악을 선으로

불법과 무자비한 박해의 과녁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택하

신 회복의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에 대한 전형이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니파이삼서 12:44~45)

그러나 요셉은 영에 이끌려 부드러운 말 뿐만 아니라 행위로써도 적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보여 주었다. 두 명의 짓궂은 박해자를 친절하게 대한 그의 행위는 그 중 한 예이다.

미주리 주지사의 명령에 의하여 레이놀즈와 윌슨, 두 대리인은 1843년 6월에 나부에서 요셉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요셉 옆구리를 권총으로 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가족을 보기 전에 잡아 가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수를 잔인하게 확대했다.

그들이 요셉과 다른 교회 지도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 때문에 재판받기 위해 나부로 돌아와야 했을 때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 요셉은 안전한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된 잔치에 참석했으며 그의 손님 중에 레이놀즈와 윌슨도 들어있었다.¹² 그 날 오후, 요셉은 나부 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레이놀즈와 윌슨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나부로 데려와서 사슬에 묶인 죄수로서가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죄수로서 그들을 제가 끌려간 곳에 회부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보상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법적으로 끌고 갔으며, 혹독하게 다루었고 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애썼으며, 만일 하나님이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저를 죽이기 위해 미주리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제 손 안에 있으며 저는 그들을 저희 집에 데려가서 식탁의 상석에 앉히고 그들 앞에 저희 집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놓았으며 그들 옆에서는 제가 끌려갈 때 만나지 못하게 했던 제 아내가 시중을 들었습니다.”¹³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떠나는 일단의 선교사들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씩 있는데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입니다.”¹⁴ 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아그립바 왕 앞에 섰던 사도 바울(사도 행전 26장 참조)이나 라모나이 왕의 부친 앞에 섰던 암몬(앨마서 20:8~28 참조)처럼 예언자 요셉 역시 사람들이 듣기만 한다면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였다.

그 은사는 요셉의 예언자다운 위업의 저변에 있는 많은 개인적인 특성 중 하나로써 우리 역시 주님을 동반하는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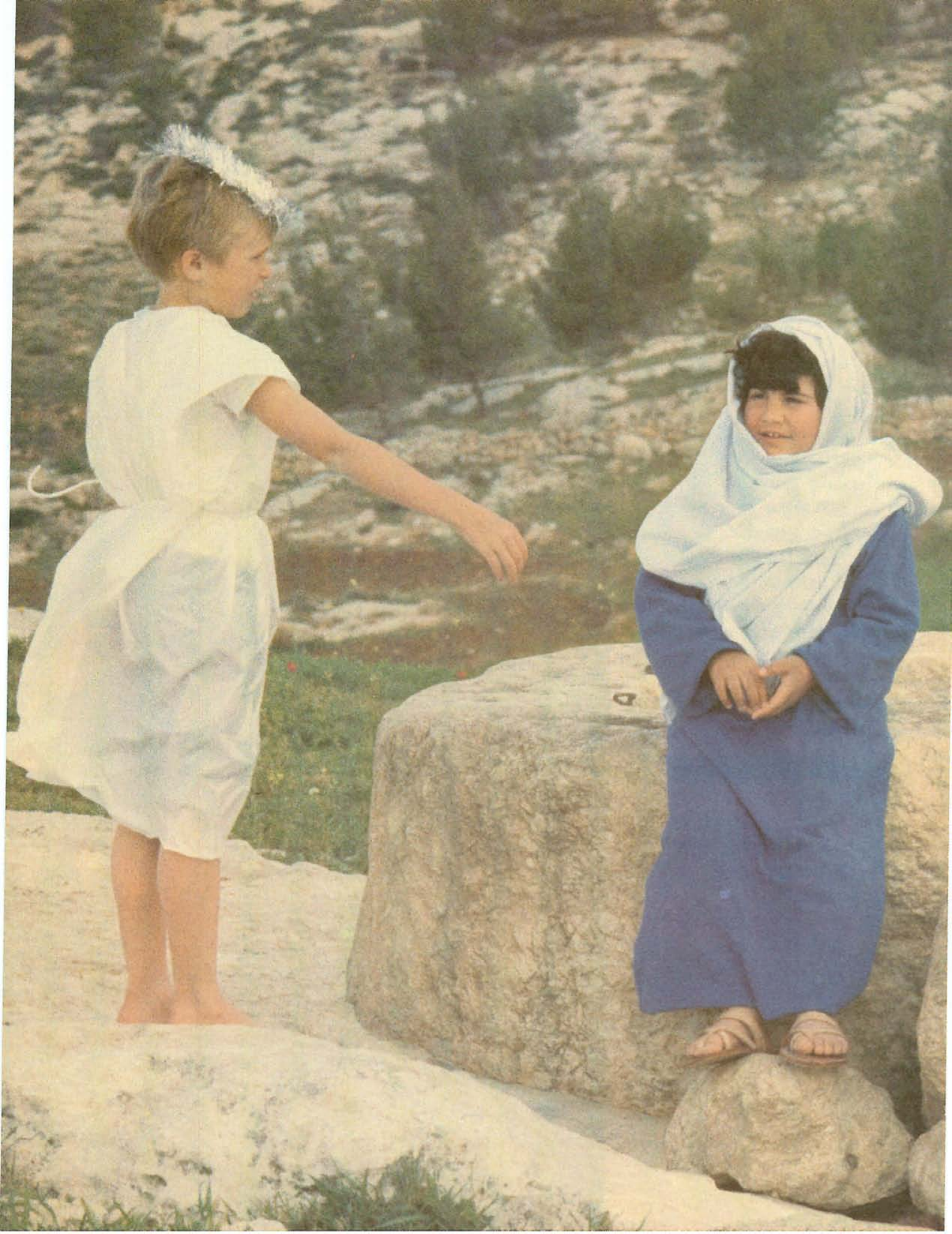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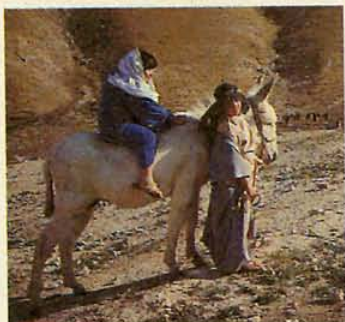
1. 팔리 퍼 프랫 자서전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0년), 46쪽
2. 교회 정사, 1:88
3. 교회 정사, 1:89
4. 교회 정사, 2:106
5.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가 쓴 요셉 스미스의 전기 (솔트레이크시티: 스티븐스와 윌리스 회사, 1945년), 254~56쪽
6. 교회 정사, 3:259
7. 피터 에이치 버넷, 옛 캘리포니아 개척자 (오클랜드: 바이오북스, 1946년), 40
8. 교회 정사, 3:320~21, 주해 참조
9. 하이람 엘 앤드루스와 헬렌 메이 앤드루스, 그들은 예언자를 알았다 (솔트레이크시티: 북 크래프트, 1974년), 172쪽
10. 이 인용문은 댄 존스의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에서 인용됨, 브리감 영 대학교 스터디즈, 24(1984년 겨울):99, 댄 존스의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의 순교!”, 24(1984년 겨울):89, 이후로는 “형제”로써 인용됨
11. 존스, “형제”, 94쪽
12. 교회 정사, 5:440~56, 460
13. 교회 정사, 5:467
14. 임프르브먼트 이라, 1899년 12월호, 128쪽

예수님의 탄생

해마다 성탄절에는 세계 각지에서 구세주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어린이들에 의해 경건하게
공연된다. 다음의 경전 이야기는 예루살렘 지부의
어린이들이 나오는 사진들을 싣고 있다. 이
사진들은 베들레헴 주위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들판, 유대의 광야 그리고 헤롯 왕궁 요새의
하나인 헤로디온에서 촬영된 것들이다.

“여
셋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26~31)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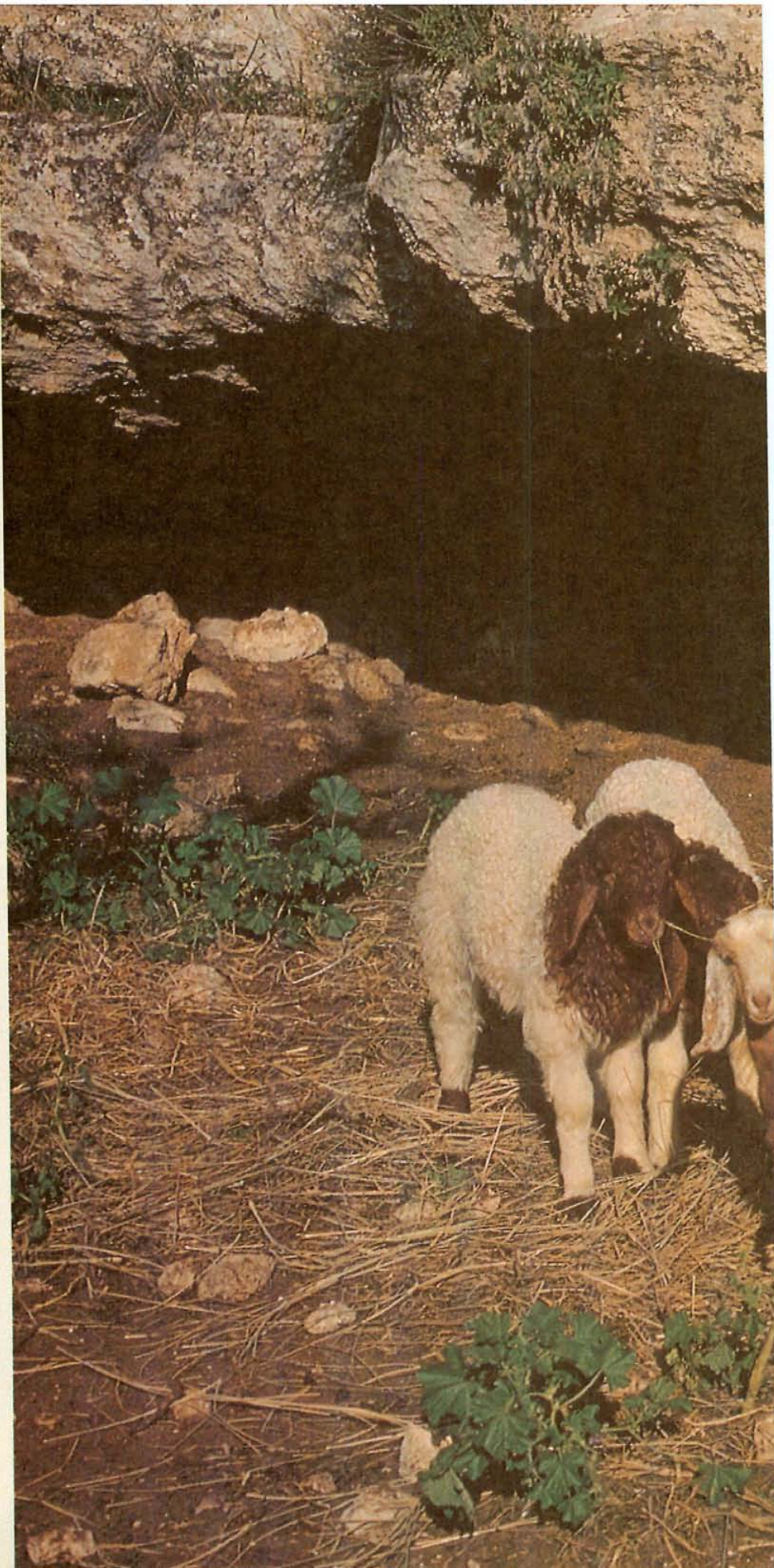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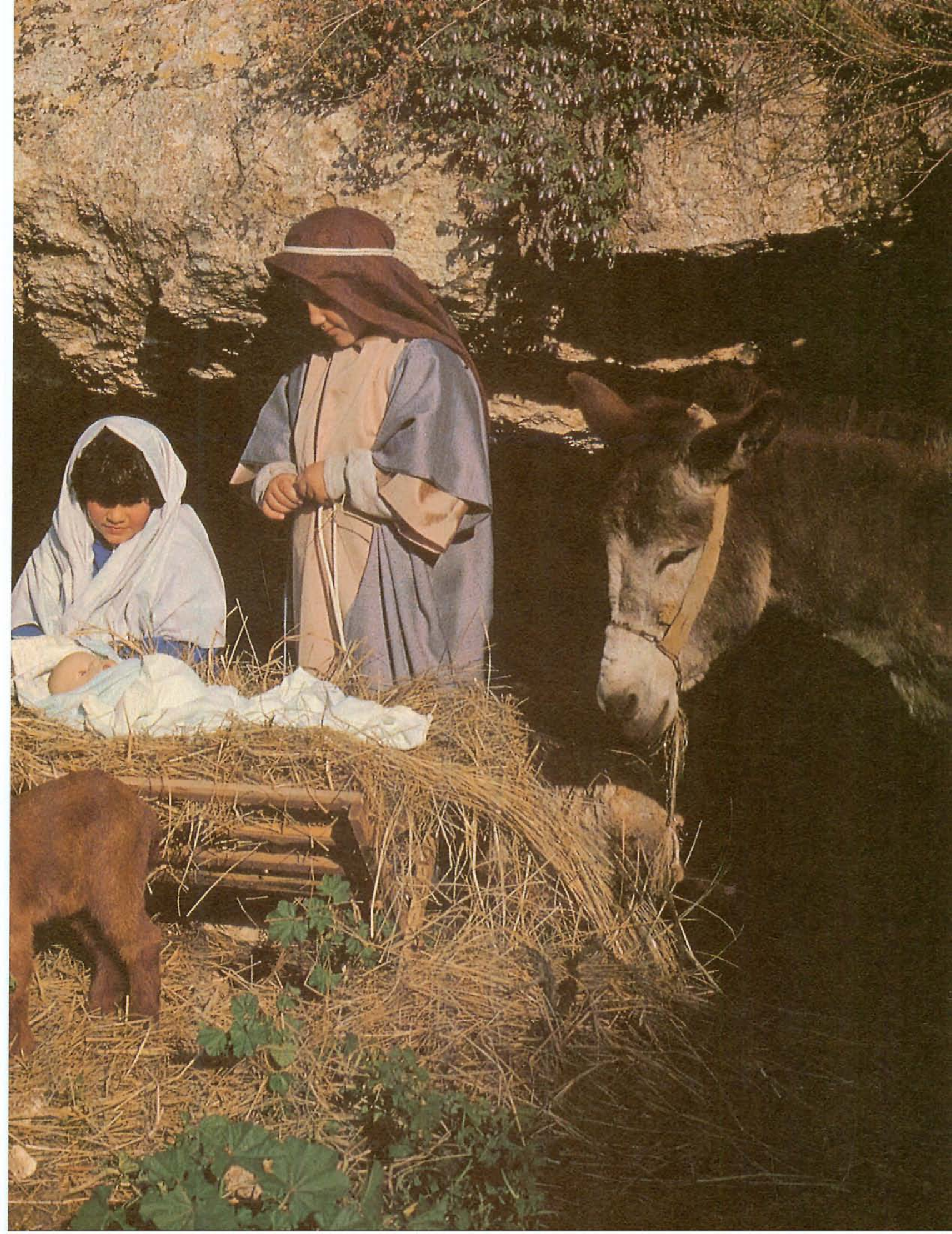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누가복음
2:1~5)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6~7)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8~14)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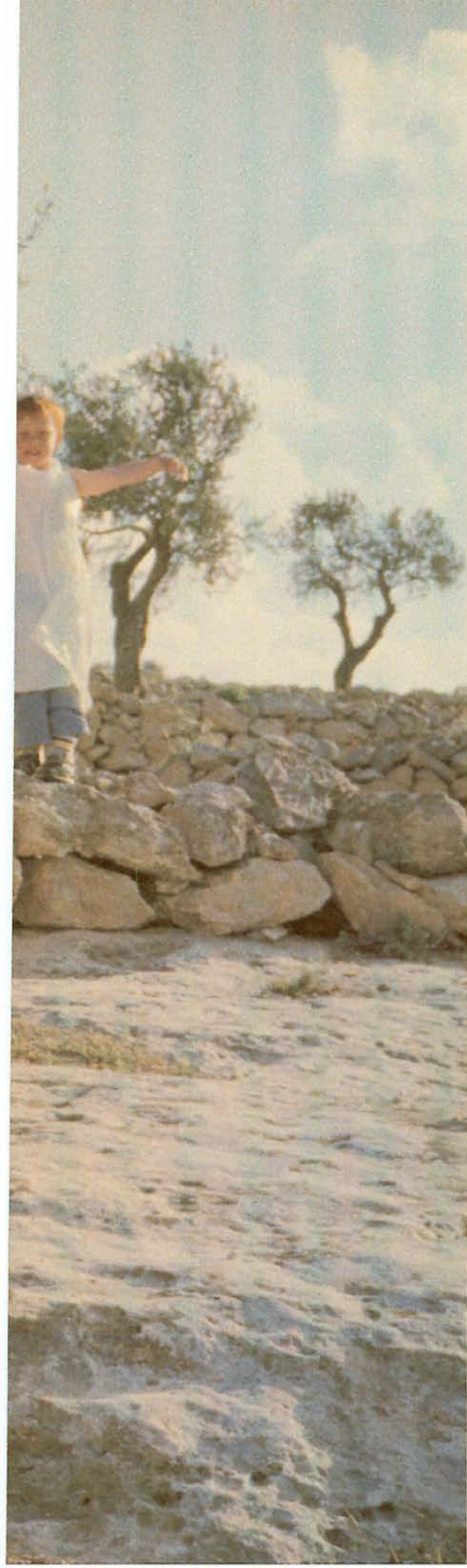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15~20)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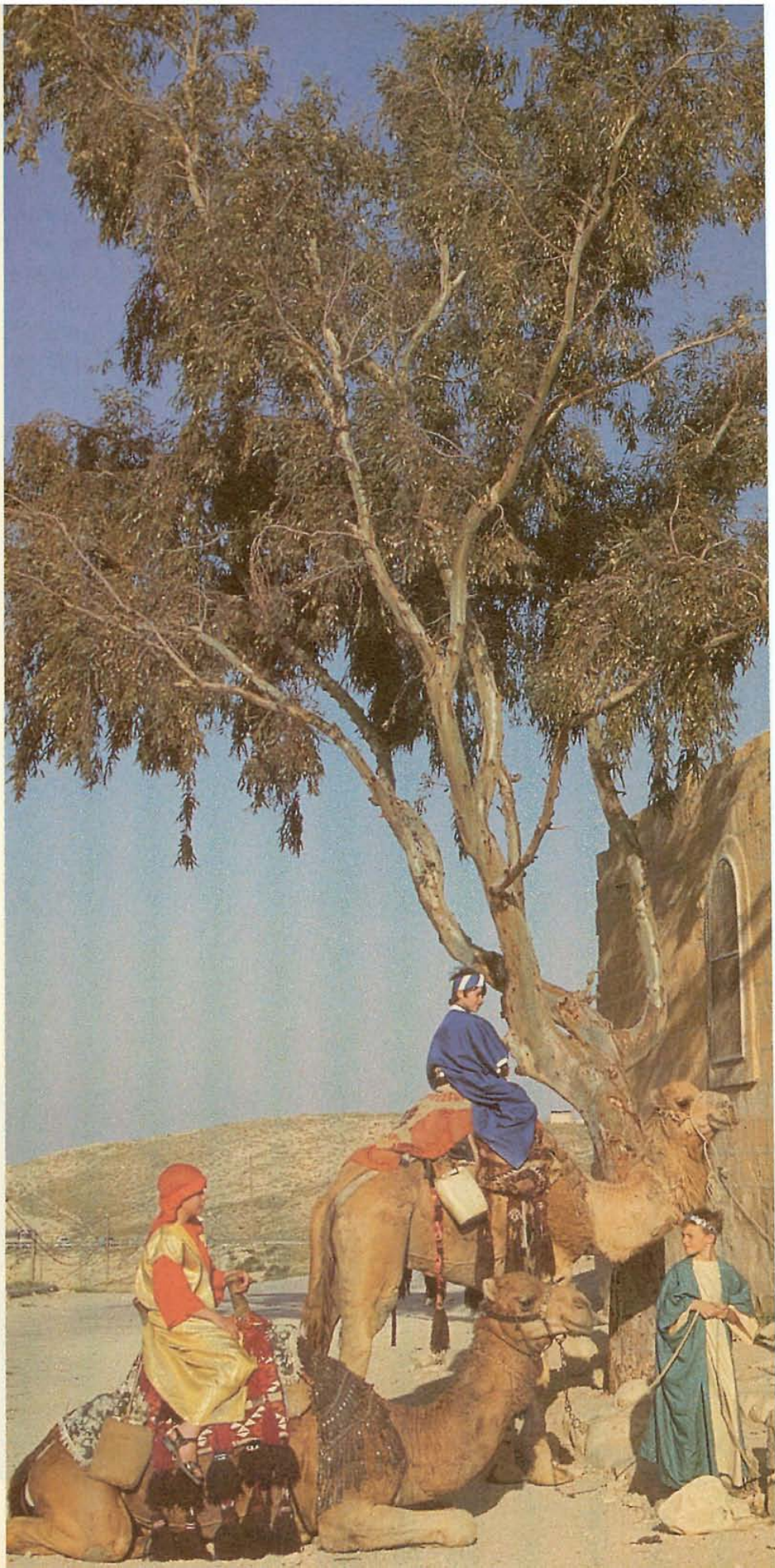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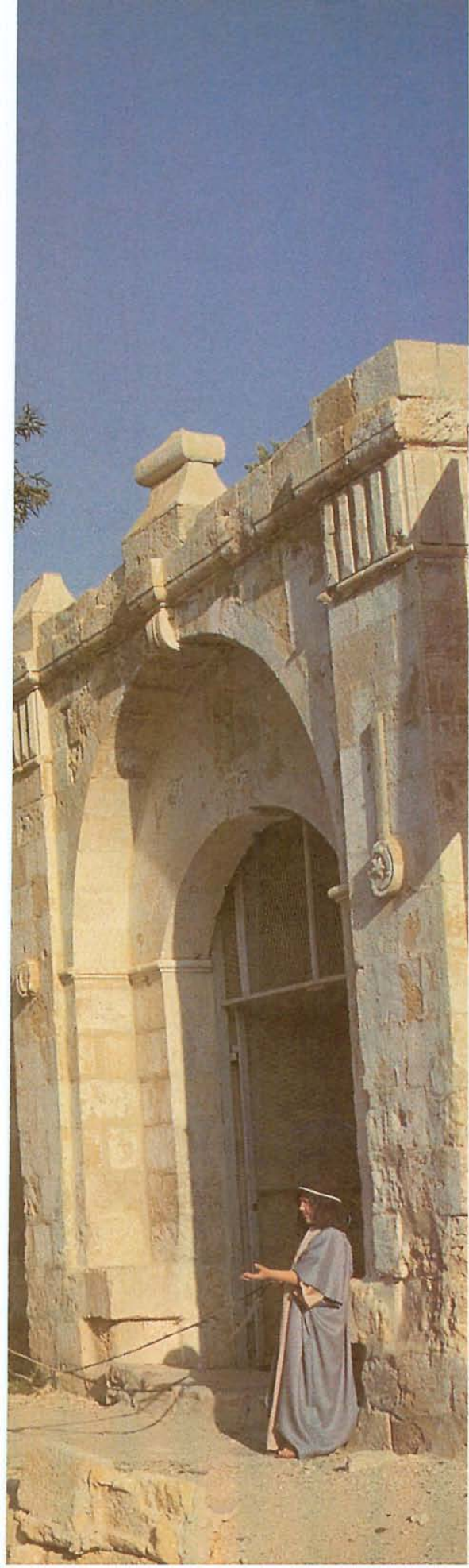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태복음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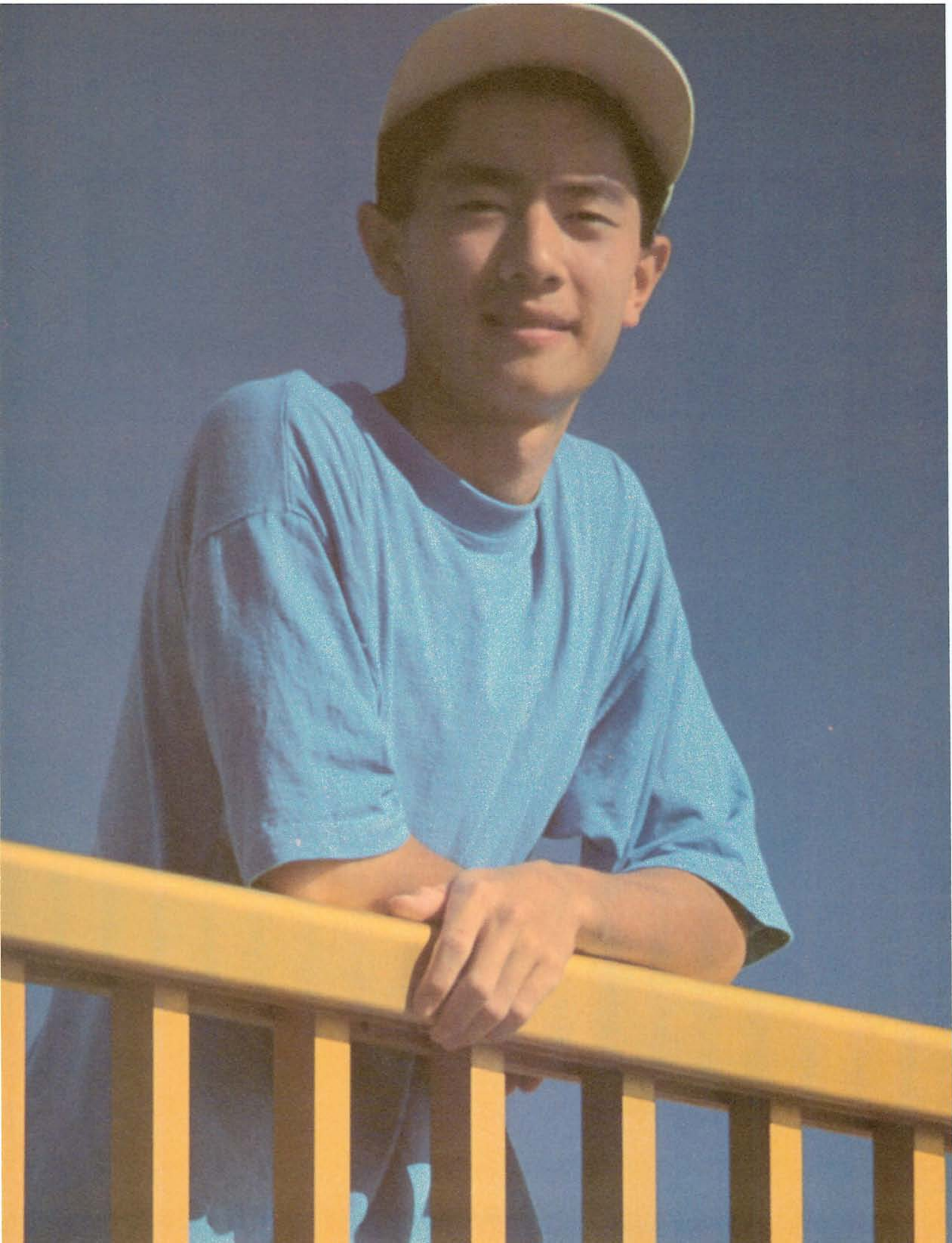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9-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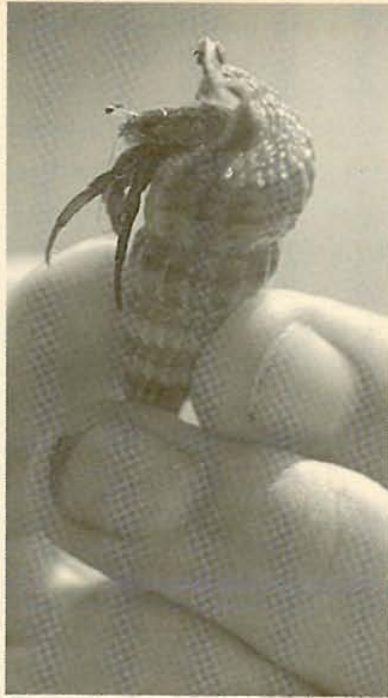


어렸을 적의 추억으로 악어나 상어, 바다뱀의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도밍고리아에게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에서 성장하고 있었을 때, 그런 동물들을 접하는 것이 그의 일상 생활의 일부였었다.

도밍고는 친구들과 함께 늘 래피드셋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갈 때에는 강 어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곤 했다. 그 강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곳이었다.

그들은 강을 건너면서, 물살 속에 떠돌아다니는 해파리를 비켜 갔고 무서운 해상 동물은 나타나지 않나 경계하면서 나아가곤 했다.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상어가 이곳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어가 진흙 속에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독사와 독침을 가진 스톤피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 저편에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물고기 떼에 유혹을 느



인생의 강물이 도밍고를 어릴 때 그가 놀았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작은 강으로부터 그를 멀리 떼어놓았다. 그는 이 인생의 강에서 격류를 헤치고 곳곳이 해엄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곤 하였다.

“거기는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지요.” 도밍고는 회상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물고기를 여러 양동이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강변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깨끗한 곳이었고 그 옆에 푸른 들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후

오늘날 이 강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다. 광활한 들판은 공원으로 변모되었고 산책로가 열 십자로 나 있다. 또 대학생들이 이곳을 자주 드나들기도 한다. 도밍고는 지금도 이 강을 회상하기를 좋아하고 또 즐겨 찾아가기도 한다.

도밍고의 젊은 시절은 갖가지 추억으로 가득하다. 그의 추억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북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티모르 섬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도네시아가 티모르 섬을 침략했을 때, 중국인인 그의 부모는 포르투갈 식민지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포르투갈로 피신하였고 부녀와 아이들

도밍고 리아오의 승리

리처드 엠 룬니

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도피하였다. 도밍고 (도밍고는 포르투갈어 이름이다.)는 이렇게 말한다. “나하고 어머니하고 다른 몇 명의 친척들은 보트를 타고 왔기 때문에 다행이 살아 남았지요.”

도밍고의 아버지는 후에 다윈에서 그들과 만나 함께 살게 되었다. 도밍고의 가족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이 두 명 더 늘었다. 도밍고는 영어를 배웠고, 크리켓, 가라데, 테니스, 축구, 핸드볼, 배구 등 각종 스포츠도 알게 되었다. 도밍고의 학교 성적은 우수하였고 음악과 예술 실력도 뛰어났다. 그는 그의 숙부의 식당에서 일했다.

신앙의 시절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도밍고의 숙모는 어느 날 도밍고의 가족을 선교사에게 소개했다. 도밍고의 가족은 곧 교회 회원이 되었다. 도밍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족은 1년간 활동 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은 비활동 되었고, 나는 얼마 동안 교회에 참석하다가, 일요일만 되면 크리켓 치러 다니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멜버른에 있는 도밍고의 할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렸다. 그의 할

아버지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16세인 도밍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도밍고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할아버지께 더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저의 생애를 교회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후 저는 할아버지가 회복되시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약속했으면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병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회복되고 있을 때쯤은 도밍고는 이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단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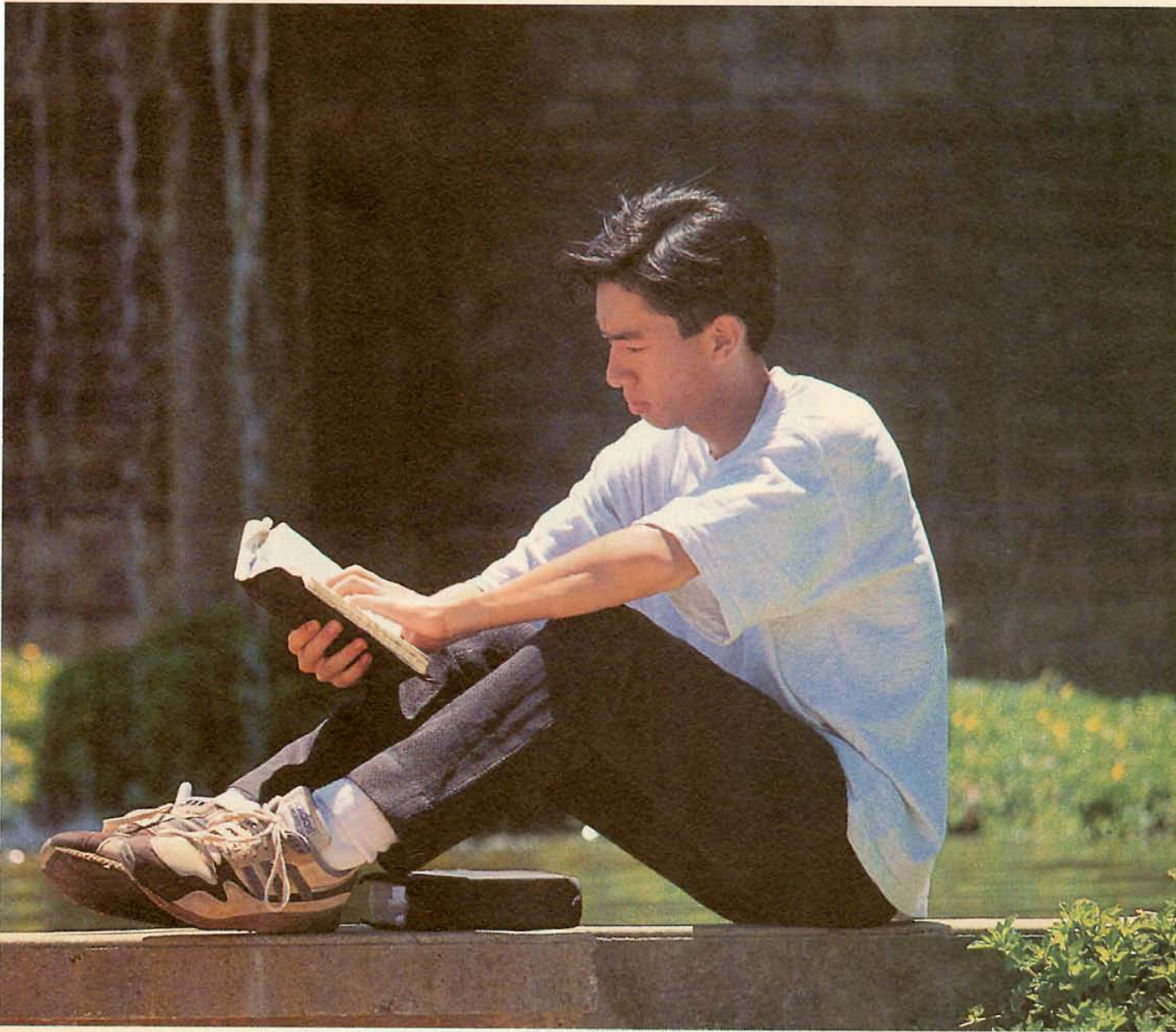
투쟁의 시절

도밍고가 18세 되었을 때 그의 교회 활동회는 그의 아버지를 노엽게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는 세미나리(신학 연구원 중등부 과정)가 저의 학교 공부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세미나리에 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저는



도밍고의 가족은 그가 선교 사업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는 때때로 경전을 읽으며 온종일을 보내곤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경전 공부는 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으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세미나리에 가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세미나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것마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마저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내가 경전을 읽으면 학교 숙제를 하지 않은 줄로 생각하셨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았는데도 그랬지요. 한번은 제게서 경전을 빼앗아 쓰레기 통에 던져 버리시더군요. 그 경전은 제가 지난 2년간 읽으면서 줄을 긋고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제게는 정

말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그 경전을 도로 찾아 놓았지요. 그러나 어디 감추어 놓을 데가 없어 지부장님께 가서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도밍고의 아버지는 경전 공부, 활동 모임, 가정 복음 교육, 일요일 모임 등 교회 활동과 관련된 일이면 무엇이든 금지시켰다.

“제가 18세이고 법적으로 독립된 청년이었지만, 저의 첫번째 의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이므로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

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에 계속 다니겠다고 한 저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가 그 주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면 돌아올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방을 챙기고 그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내가 집을 나가려고 모든 것을 챙겨 놓은 것을 보자 대노하셨습니다.”

도밍고는 집을 나갔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교회로 와서 아들을 찾았고 그와 타협을 했다. 결국 그들은 도밍고가



격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해도 좋다는 합의를 보았다. 이에 대해 도밍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 때 그 합의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교회를 전혀 다니지 말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 다음 번에는 도밍고가 교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또 다시 “교회에 나가면 영영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라.”고 말씀했다. 도밍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 두번째도 첫번째 만큼 심했었습니다. 아니 첫번째보다 더 심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축복사님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오시지 않았고 또 먼 데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아버지도 역시 그 곳에 따라 왔습니다. 결국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도밍고의 아버지가 세번째로 비슷한 방법으로 박해를 했을 때, 도밍고는 집을 나와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결국은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는 괜찮으시며 노여워

도밍고 리아오 장로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매우 행복하였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행복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그가 그토록 기꺼이 인내하였던 이유를 가족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일 것이다.

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심의 날들

그런데 도밍고는 할머니 집에 있는 동안, 복음 선교사로 봉사해야겠다는 뜻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열 아홉 살이 되면 가야 한다는 아주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던 테리토리 대학교에서 첫 1년간 수업을 마치면, 그 학교에서 2년간의 선교사 봉사를 허용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선교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수개월간의 훨씬 힘든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도밍고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학교 지도 교수님은 실제로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편, 도밍고는 고등 학교 졸업 후부터 해오던 일, 즉 회개의 단계와 구원의 계획에 관해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을 계속 실행했다.

도밍고는 경전 공부를 강화하고 많은 성구를 외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경전 공부는 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도밍고는 선교사들의 복음 토론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하였고 때때로 간증도 하였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간증도 기록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접견하여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선교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후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또 집을 나가라고 엄하게 말씀했다. 이번이 네번째였다. 도밍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은 상당히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 앞으로 저는 그 분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도밍고가 다니는 지부의 마이클 쿤 지부장이 선교사 부름장이 올 때까지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였으므로 도밍고는 기도하고 고상한 음악을 들으며 교회 활동에 참가하고 선교 사업을 도우며 경전 공부하는 것 등으로 매일 매일을 바쁘게 보냈다. 때로는 온종일 경전을 읽곤 하였다.

즐거운 시절

드디어 다음과 같은 선교사 부름장이 왔다. “형제님은 홍콩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도밍고는 떠나기 전에 그의 가족과 화해를 해 보려고 잠시 집에 들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은 저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결국 체념하였지요.” 그가 떠나기 전, 그의 가족들은 밖으로 저와 그와 함께 식사하였고, 함께 많은 사진을 찍었다.

선교사 훈련원(MTC)과 선교 지역에서 쓴 그의 서신들은 그 후 곧 기쁜 일들이 뒤따랐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공항에서 저는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선교사들 중 한 분인 호이트 스카벨룬드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분과 함께 그의 부인과 아이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나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광둥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분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정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며, 크게 축복을 받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가족과 친척들은 지금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리에서 선교 전시를 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광둥어로 여섯 개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지금 마카오로 이동 왔습니다. 이 곳은 중국 해안과 접경해 있는 포르투갈 식민지입니다. 이 곳에서 봉사하게 되는 선교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행운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도자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몰몬경을 읽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편도 견딜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욕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은밀히 기도드리기 위해 기다리던 매 순간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도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타격도, 고통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릴만한 가치도 있었습니다.”

평안의 날들

오늘날 마카오에 있는 도밍고 리아오우 장로는 선교사 아파트 창 밖을 내다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복음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 저에겐 헤쳐가야 할 격류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나타나서 독침으로 저를 쏘거나 저를 삼켜버릴 지도 모르는 위험들이 물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편에 도착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시련은 겪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도밍고 리아오 장로는 지금 그의 가족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강 저편으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

여러분의

리사 에이 존슨
사진 촬영: 켈트 앤'

여러분은 돈보다 시간이 더 많습니까? 돈보다 재능이 더 많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구두쇠가 되지 않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겠네요. 이제 다음에 나올 목록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것을 여러분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 가족에게 거울에 붙일 수 있는 일련의 성구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매달 카드를 갈아 붙일 수 있도록 12개, 혹은 매주 갈아 붙이도록 52개를 만들어도 좋아요. 카드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손으로 쓰거나 타자로 치세요.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색칠을 해서 꾸며도 좋습니다. 상자 안에 카드와 테이프 한통을 넣어 포장하세요. 사용 설명서를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값싼 달력을 하나 사거나 만드세요. 그 달력에 생일이나 기념일, 마감일, 휴가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가족 행사일을 적으세요. 기타 다른 행사날을 추가해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남기세요. 식구들이 일 년 내내 행사 날짜와 활동에 맞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인 집안 한가운데 그 달력을 걸어 두세요.

- “중요한 10가지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을 타자로 치거나 손으로 깨끗하게 써서 두루마리처럼 말아 리본으로 묶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재미있는 것이나 심각한 것 모두 좋아요. “엄마나 아빠가 바로 내 엄마나 아빠 (혹은 오빠나 언니)인 것이 왜 기쁜 일인지”, “내가 알아차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한 일들” 혹은 우리가 함께 보냈던 가장 즐거웠던 시간들”과 같은 주제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루 푹 쉴 수 있는 선물권을 드리세요. 만약 부모님에게 드리

크 리 스 마 스 목 록

고 싶은 식당 이용 선물권이 너무 비싸다면, 부모님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야외에서 드실 수 있는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어 드리세요. 부모님이 외출하신 동안 동생을 돌보는 것도 좋은 봉사지요.

- 부모님이 어느 성전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알아내세요. 아마도 부모님이 결혼하신 성전일 수도 있겠고, 가장 가까운 성전이거나, 지어질 때 기금을 헌납하신 성전, 혹은 가 보고 싶어 하시는 성전일 수도 있겠지요. 그 성전을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인쇄된 것을 찾거나, 혹은 교회 잡지에서 그 성전의 사진을 찾아서 액자에 넣어 부모님에게 드리세요.

- 예쁜 편지지나 아름다운 카드를 사서 여러분의 간증을 적으세요. 복음과 여러분의 가족의 모범이 여러분이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어떻게 영감을 주는가를 포함시키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족에게 준 어떤 선물보다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점심을 싸서 학교에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평소에 늘 먹는 음식이 아닌 여러분 집안의 특별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을 만들어 가도 좋겠지요.

- 값이 비싸지 않은 큰 머그 컵을 사서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 한 병을 담은 후에 손잡이에 예쁜 리본을 묶어서 주세요.

경전 트리를 만들어 주세요. 가게에서 작은 트리를 사거나, 종이나 나무로 작은 트리를 만드세요. 성구가 적힌 가늘고 긴 색종이 조각이나 색리본으로 묶은 하얀 카드들로 장식할 수 있지요. 성탄절을 포함해서 그 날까지 12월에 25일이 있으므로 25가지 성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성탄절 무렵에 춥고 눈이 온다면, 친구들에게 눈사람 만들기 재료를 주세요. 오래 된 모자와 목도리를 찾거나(중고품 가게에 있을지도 몰라요.) 천으로 만드세요. 눈과 입을 만들 솜이나 단추와 코를 만들 당근을 반드시 넣으세요. 또한 값이 싼 빗자루도 찾아야 할 거예요.

- 친구들에게 새 물몬경을 주세요. 비싼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만약 회원이 아니라면 물몬경 안에 간증을 써서 주고, 회원이라면 표지를 예쁘게 싸서 주세요.

선교사를 위해

- 부피가 크지 않은 가벼운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주세요. 매다는 양말이나, 막대 사탕으로 만들어진 트리나, 팝콘이나, 사탕이나, 색색깔의 씨리얼 루프를 길게 꿰어 만든 목걸이와 같은 사용한 후에 먹을 수 있거나 버리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런 것들은 동생들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부서지거나 망가지는 것이나, 크리스마스 축제 절기가 다 끝날 때쯤에 선교사들이 꾸러서 보관하기 힘든 물건은 보내지 마세요.

- 깨지지 않는 납작한 액자에 끼운 사진이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지요. 선교사들은 집으로부터 결코 충분할 만큼 사진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 그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온 우표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울리는 편지지와 함께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선물할 수도 있지요.

- 선교사들이 구도자와 도움을 주는 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조그만 선물들을 선교사들은 언제나 고맙게 받는답니다. 그러한 선물에는 영적 메시지가 담긴 서표나 카드가 포함될 수 있지요.

노인을 위해

- 그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선물을 주세요. 그들이 움직일 수 있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무료 식당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원해서 함께 일 하는 것이지요.
-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꾸미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하다면, 손수 만든 장식품으로 꾸미거나,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집해 온 것을 진열하도록 도와주세요.
- 무료 크리스마스 음악회나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에 모시고 가세요. 예의 바르고 쾌활한 사람과 외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 그들의 집을 청소하거나, 마당을 쓸어 드리거나 눈을 치워 드리세요. 다음에도 또 와서 도와 드리겠다고 하는 증명서를 선물로 드리세요.
- 추억을 선물로 드리세요.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사진이나 기억될 만한 행사들을 수집해서 스크랩 북을 만들어 드리면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생각해 보니 여러분의 선물 목록에 우리는 없네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약간 서두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년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내년 12월호에, 우리는 온 세상의 10대 말일성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실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짧게 되었거나 강화되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했던 시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불과 몇 문단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낌을 종이에 적으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왜 그렇게 느꼈는지도 간단히 적어 주기를 바랍니다.

1996년 4월 30일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어떤 언어라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이름, 나이, 주소 및 워드와 스테이크 (혹은 지부와 지방부)를 꼭 적어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은: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돌려 줄 필요가 없는 사진도 한 장 동봉해 주세요. □

서울성전 헌납 10주년 기념 특집

목 차

왜 성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2
서울 성전 헌납 기도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6
역대 성전장단	9
한국에 큰 기쁨을 가져온 날: 서울 성전 역사	10
서울 성전 10주년의 의미: 배영천 성전장	12
성전 헌납 하던 날: 최옥환 형제	13
주님의 성전을 통하여: 조만구 형제	14
성전 기도를 통해 얻은 결혼: 김광윤 형제	15
삼천명의 가족 회원: 이병환 형제	16
그 날 이후 우리는: 김영주 자매, 김성곤 형제	18

표지 사진 제공: 길군천
성전 역사 사진 제공: 신재규

왜 성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조 용히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인생의 성스러운 신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를 만드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게 할까? 나의 아내와 자녀와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렇다면 그 곳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게 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지혜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각 성전은 주님의 집이요, 거룩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헌납되었으며, 세상적인 모든 것과는 멀리 떨어져 영원한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가 가르쳐지고 의식이 집행되며,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성스러운 유산과 영원한 존재로서 그가 지니는 잠재력을 알아 생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규 교회 집회 장소와 다른 이 건물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다른 종파의 집회소와는 상이합니다. 그렇게 다른 까닭은 건물이 유달리 크다는지 건축학상 미적인 멋을 살렸다는 점에서도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

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규 예배 장소와는 구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성전을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던 관습으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성스러운 장소로 지정소가 있는 광야의 장막을 지정하였으며, 이곳을 당시에는 성전으로 사용하여, 특별한 의식을 행했고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의식을 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시켜 모든 시설을 살펴보게 합니다. 일단 주님의 집으로 헌납되어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면 교회의 합당한 회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건물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와 창조에 관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과 지상의 가정을 이루는 구 성원인 가족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결혼 성약과 가족 관계의 성스럽고 영원한 성격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남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거룩한 속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풀이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는 교리가 아름답고 인상적인 어조로 되풀이 설명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 거룩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모두가 그의 형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28, 30~31)

오늘날 성전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도 인간이 그의 창조주와 그의 형제에 대해서 갖는 의무의 기본 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은 하나님 가족의 고상한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있는 영은 육신이 유한한 데 비해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또한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이해시켜 줄 뿐 아니라 참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며 하나님의 다른 많은 자녀에게 보다 큰 우애를 나타내 보이게 해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상 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서는 계시로 밝혀진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상 생활은 영원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경전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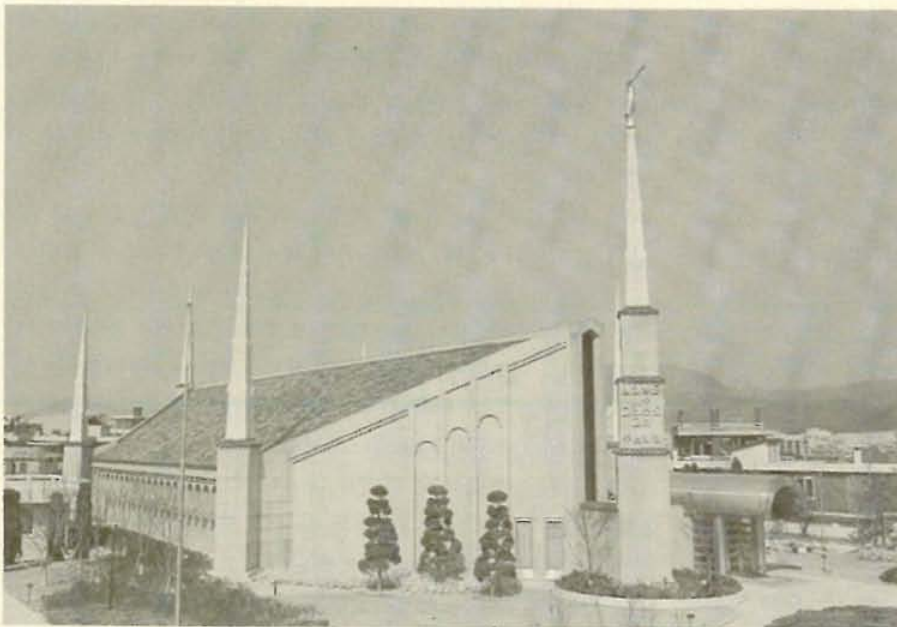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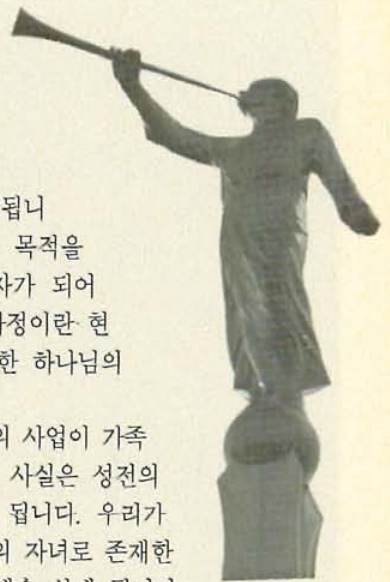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

우리는 지상의 부모를 통해 그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의 협조자가 되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족에 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 것같이 우리는 죽은 후에도 계속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맞볼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만족스러운 관계나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답고 뜻깊은 가족의 유대는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 축복에 참여하는 결혼 당사자들은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깊은 유대를 지속하게 됩니다. 국법이 그들의 결합을 죽을 때까지 지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권이 그들을 천국에서도 굳게 맺어 줍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관계나 자녀들과 갖는 유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신하게 됩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편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로서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삶의 값진 것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족 관계는 죽은 후에도 지속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서는 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통해 얻는 축복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만 국한된다면 참으로 이기적인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전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개종하는 사람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복음 사업을 펴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성스러운 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어 볼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도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하는 침례, 결혼, 가족 관계를 결बंध해 주는 인봉 의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으나 똑같은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 사업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보이는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광범위한 가족 역사 탐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족 역사 탐구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가족 역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탐구 시설을 갖춘 기록 보관소는 일반에게 공개되며 선조의 기록을 찾으려는 비회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의 계보 연구가로부터 큰 찬사를 받아 왔으며, 이 기록 보관소는 각국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교회 회원이 그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들의 선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선조들에게도 맛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과 영생을 누리하고자 원한다면 나의 조부나 증조부나 혹은 다른 선조들도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곳에서는 조용하고 경건한 가운데 수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이 기록된 계시자 요한의 시현을 회상하게 됩니다. “...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요한계시록 7:13~15)

이 성스러운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의식에 참여할 때 흰 옷

을 입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복장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성전에 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그 자체에 큰 보상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잠시 세상을 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조용히 생각하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장소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값진 것을 배우거나 회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전세에서 이 세상을 거쳐 우리가 서로 알고 사귀게 될 미래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원한 여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영과 육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 준 선조들과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성전은 다른 어느 건물과도 다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제단 아래 무릎을 꿇고 그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며, 그의 독생자이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해 희생되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위해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영원한 가족으로, 죽음으로도 해칠 수 없는 관계로 인봉되고 함께 맺어집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건물은 말일성도들이 무참히 쫓겨 다니고 박해를 받던 암흑 시대에도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빈곤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번성하던 시대에도 세워져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예언자와 거룩한 계시와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믿는 회원들의 강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성도의 벗, 1986년 6월호에서 발췌)



서울 성전 헌납 기도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오,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민의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께 이 헌납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임하였사오며 온 세상의 구속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날을 맞음에 기쁨으로 충만하나이다. 이 집은 아시아 대륙에 세워지는 첫번째 주님의 집이오며 참으로 이 거대한 대륙에는 수십억의 당신의 아들과 딸이 살고 있으며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접하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이 여러 세대를 살았던 곳입니다.

당신의 사업의 씨가 불과 삼 반세기 전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소수의 군복무를 하고 있던 당신의 아들들에 의해 접촉이 가능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는 위대하고 뛰어난 학자요 지도자였던 김호직 형제의 마음을 그가 조국 땅에 돌아와 물문경의 영광과 감화를 체험하였고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로서의 부름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며 그는 그가 새롭게 발견한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초청되었고 이로써 저들은 신앙과 영감으로 이곳에서 한 생명 저곳에서 한 생명 가르쳤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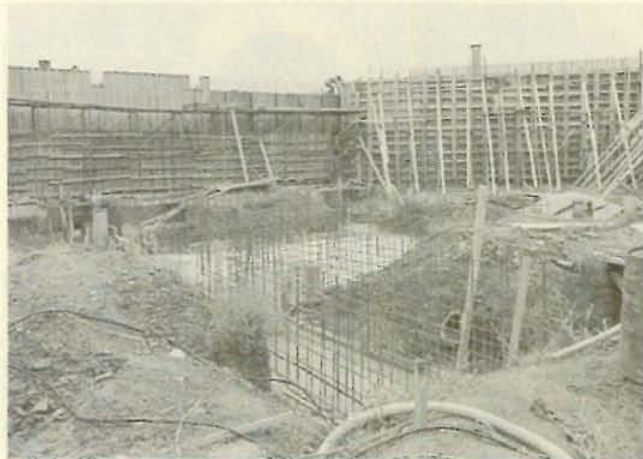
그러한 작은 출발과 심각한 고난의 때로부터 당신의 사업은 전진을 계속하여 그 무리의 숫자는 여러 곱으로 늘어났고 당신의 인자하신 손길 아래 번창하였나이다. 시온의 스테이크가 세워졌고 당신의 교회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아름다운 나라의 비옥한 땅에 굳게 뿌리를 내렸으며 대한 민국의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터전이 되었나이다.

당신께서는 이곳의 당신의 사업에 따뜻한 미소로 임하셨나

이다. 이 나라의 정부는 당신의 종들을 친절로 대접하였나이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우뚝 선 증거인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당신께 헌납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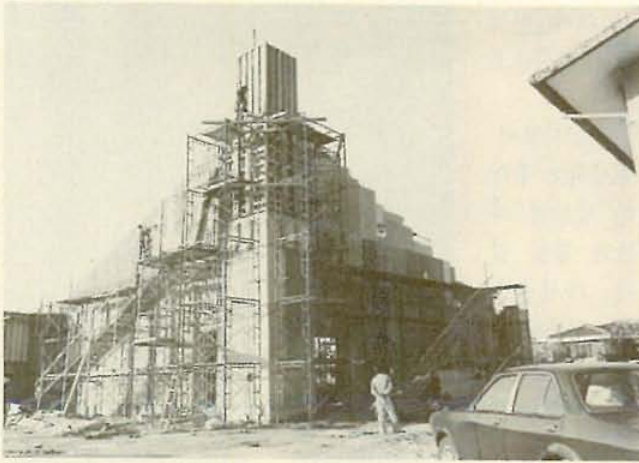
성전 기초 터파기 및 규준틀 매기 공사(83년 7월 3일 촬영)



성전 외벽 공벽 공사(83년 9월 3일 촬영)

성전 10주년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성전 상징탑 외벽 공벽 공사(83년 10월 5일 촬영)



성전 내부 철골 구조 공사(83년 12월 9일)



성전 외벽 및 지붕 공사(83년 12월 20일)

오, 하나님 이제까지 허락하신 일로 당신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당신의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를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에 현세와 영원을 두고 축복드리나이다.

당신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성임되고 거룩하신 신권의 권능으로 행사하며 당신의 택하신 예언자 에스라 태프트 벤슨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우리는 이 전,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한국 서울 성전을 헌납합니다. 우리는 이 전을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헌납하오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전을 당신의 거룩한 집으로 헌납하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방문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로 거룩하게 해 주시도록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이 집의 기초의 기초로부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선포될 영원한 복음의 또 다른 증거를 가져 온 천사 모로나이의 동상을 포함한 가장 높은 탑의 꼭대기까지를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집의 모든 구조물과 영원한 약속이 맺어질 성스러운 재단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대지와 이 거룩한 전의 합당한 부속물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헌납하나이다.

이 집, 곧 당신의 전이 사나운 바람과 폭풍우로부터 보존되며 땅의 요동으로부터 보존되며 원수의 모독으로부터 보존되며 전쟁이나 소요의 파괴의 힘으로부터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집이 늘 화평의 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사악함과 소음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적대자가 이 전의 정문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이 모두 정한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대함에 합당하도록 하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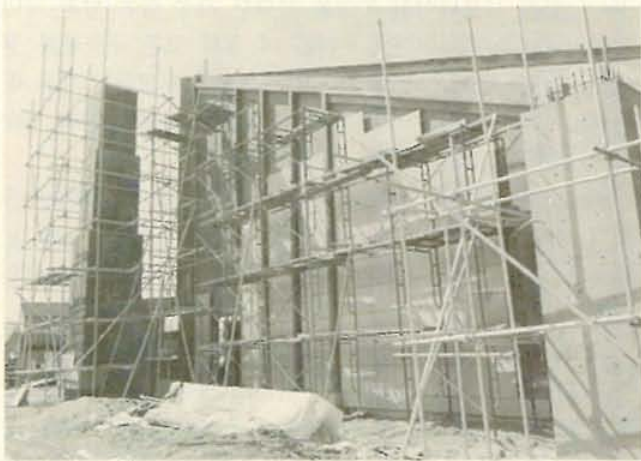
저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하시고 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보호의 팔로 저들을 감싸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과 사랑과 조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당신에 대한 신앙과 충성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전이 영원한 신권의 권능으로 거룩한 의식이 집행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당신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더욱 돈독해지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당신과 맺은 성약이 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영원한 진리의 빛이 저들의 용모에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있는 동안 복음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사망의 장막 저 너머로까지 이어지는 삶의 축복까지도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린 청년 청년들이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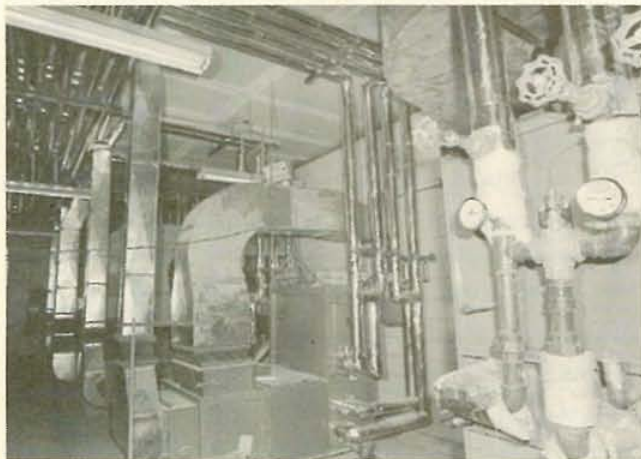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과 간증으로 무장하고 이 전에 있는 제단에서 혼약의 영원한 유대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저들이 서로 나누는 성약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서로에 대한 감사의 정신과 존경을 갖는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받는 영원한 진리의 이해가 저들의 자녀가 역시 사랑과 진리로 양육되어야 할 당신의 자녀라는 지식을 밝히도록 하옵소서. 자녀들이 당신에 대한 신앙과 헌신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당신의 사업이 이 땅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더욱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가 속박과 억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도록 복주옵소서. 충실한 성도들을 박해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저들의 부지런함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율법에 순종하여 당신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



성전 외벽 화강석 부착 공사(84년 3월 2일 촬영)



성전 내부 냉·온풍기 설비공사(85년 3월 18일 촬영)

릴 때에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충실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 앞에 가지옵소서. 저들의 오른쪽에 계시며 또 왼쪽에 계시옵소서. 저들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인도하시며 저들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의 일깨워 주는 권세로 어루만지사 저들이 회복된 진리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사업의 우리 안으로 영접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 백성들 위에도 당신의 미소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대한 민국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문을 열게 하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의 국민들도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언자를 주심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근 위대하고 선한 한 지도자의 서거와 맡겨진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여러 해 동안 준비되어 온 다른 지도자의 부름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조용하고도 훌륭한 권한의 이동이 한 지도자로부터 다른 지도자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신 벤슨 대관장을 주심을 당신께 감사드리오며 당신의 축복이 부여져서 그가 당신의 보시기에 훌륭하며 그가 더욱 강건해지며 당신의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 튼튼할 수 있으며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헌납 의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빨리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당신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종의 훈계대로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직책을 축복하옵소서. 대한 민국을 감리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저들이 맡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태도로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성전 상징탑 마무리 공사(85년 3월 7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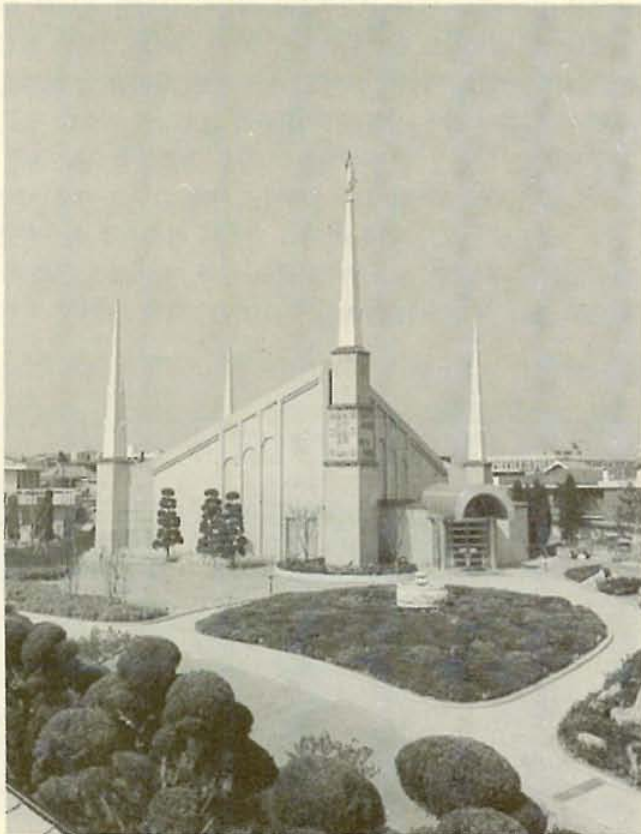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인이신 엘로힘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당신의 충실한 성도를 대표하는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업이 이 땅에서 크게 자라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 선한 영향이 교회가 조직되는 모든 곳에서 크게 일도록 하시옵소서. 덕스러움이 말일성도의 표시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골격을 다듬으시고 축복과 행복을 위하여 저들의 삶의 여건을 인도하시옵소서.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당신의 권세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매만져 주셔서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머짐으로써 당신 앞에 더욱 충실하게 건졌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당신께 향한 우리들의 신앙과 봉사의 결의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

(성도의 빛, 1986년 2-3월호에서 발췌)



건물 및 조경이 완성되어 헌납된 뒤의 성전(86년 봄 촬영)

역대 성전장단



1대 성전장단:(왼쪽부터)허재(1보좌),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성전장), 박재암(2보좌)



2대 성전장단:(왼쪽부터)이준택(1보좌), 스펜서 제이 팔머(성전장, 박남수(2보좌), 전중철(성전 사무장)



3대 성전장단:(왼쪽부터)박남수(1보좌), 박병규(성전장), 배영철(2보좌)



4대 성전장 부부:배영천(성전장), 김순정(메이트론)

한국에 큰 기쁨을 가져온 날

서울 성전 역사

1981년 4월 1일 교회의 제12대 대관장이요 살아 계신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서 한국 서울 성전 건립을 발표하였다. 이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건립된 성전 중 37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일본 동경 성전 헌납 이후, 아시아 대륙의 첫번째 성전인 서울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성전은 곧 주님의 집이요, 가르침을 베푸는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베풀어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서울 성전이야말로 북한과 중공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에의 선교 사업에 있어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

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1981년 12월 5일 이호남 장로가 한국 서울 성전 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형제가 부위원장으로 부름받았다. 한인상 장로와 최옥환 장로(교문), 김창선(VIP위원), 김용일(통역 위원), 박재암(일반 공개 담당 위원), 허채, Jon C Thope(인전 담당 위원), 홍무광(인쇄와 정초, 음악 담당 위원), 박래정(숙박 준비 위원), 손승은(교통 담당 위원), 김정열(공보 담당 위원), 서원(재정), 전중철(성전 사무장), 최동원, 이순철 형제들이 성전 준비 위원으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983년 5월 9일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0-23호에서 한국 서울 성전 기공식이 있었다. 이 장소는 1966년 1월 10일 스펜서 제이 팔머 당시 선교부장에 의하여 구입된 것이다. 이 기공식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한국 서울 성전 준비 위원회 위원장인 이호남 장로, 최옥환 장로, 한인상 장로와 버틀러 서울 선교부장, 켄슨 서울서 선교부장, 8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미군 지방 부장 등 초청 인사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교회 본부 성전 건축 위원회에서 한국 서울 성전 건축 감독으로 Calvin S. Wardell 형제를 부름으로써 대지 2,416평, 연건



한국 서울 성전 위원회 위원들

뒷줄 왼쪽부터: 전중철, 김정열, 켄슨, 존스, 돌프, 손승은, 서원, 김병희, 박내정, 김용일, 이순철 ; 앞줄 왼쪽부터: 홍무광, 최동원, 허채, 최옥환, 이호남, 김창선, 박재암



성전 기공식에 참여한 총관리 역원 및 신권 지도자들
왼쪽부터: 한인상, 브래드포드(칠십인), 애쉬튼(십이사도), 고마쯔(칠십인), 이호남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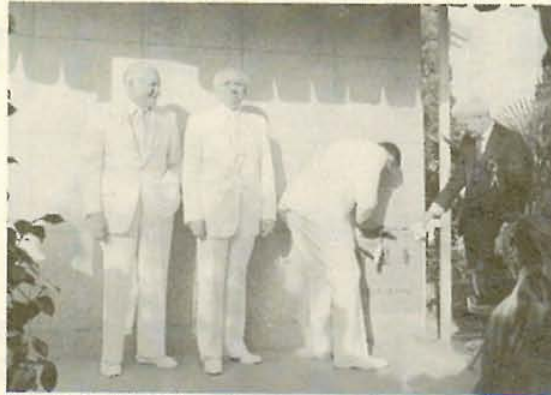
평 788평의 지상 1층, 지하 1층의 건축을 진행하였다.

1985년 10월 24일 초대 성전 장으로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형제가 성임 되었으며 3년간에 걸친 성전 공사는 1985년 11월 15일 완공을 보았다.

11월 25일에 있었던 귀빈 일반 공개에 유창순 전 국무총리,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69명의 귀빈들이 참석했으며 26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일반 공개에는 연 12,700명이 참여했다.

일반 공개가 끝난 후 12월 14일의 헌납식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5일부터 13일에 이르기까지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이 헌납식을 위해 내한하였다.

1985년 12월 14일 9시 30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의 감리와 사회로 정초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개회 찬송에는 주기도문, 개회 기도를 최욱환 장로가 했다. 말씀 순서에



서울 성전 머릿들을 놓고있는 총관리 역원들. 왼쪽부터 헌터 장로, 힝클리 장로, 고마쯔 장로 ; 맨오른쪽은 성전 건축 감독인 와델 형제. 후에 헌터 장로는 교회 14대 대관장, 그 뒤를 이어 힝클리 장로가 15대 대관장이 되었다.

는 브래드포드 장로, 헌터 장로 (후에 벤슨 대관장에 이어 교회의 14대 대관장이 됨), 힝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도환 서울 선교부장의 폐회 기도로서 정초식을 마친 후, 이어 10시 30분에 헌납식을 가졌다. 헌납식의 개회 찬송은 24장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구 찬송가), 개회 기도는 한인상 장로가 하였으며, 폐회 찬송은 196장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구 찬송가), 폐회 기도는 이호남 장로가 하였다.

12월 15일 오전 8시에는 서울 북, 강서 스테이크, 1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제삼 반복 의식을 가졌다. 오후 1시 30분에는 외국인 회원과 선교사를 위한 제사 반복 의식, 오후 4시에는 서울 동대문, 서울 서, 인천 스테이크 성도들을 위한 제오 반복 의식이 거행되었다. □



귀빈 공개에 성전을 방문한 유창순 전 국무총리(맨오른쪽)



일반 공개에서 방문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일반 공개에 성전을 방문한 교회 회원과 구도자들

서울 성전 10주년의 의미



배영천(서울 성전장)

12월 14, 15일은 서울 성전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며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970년 8월에 한국 성도들은 처음으로 여섯 쌍이 하와이 성전을 방문하고 의식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81년 4월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 서울 성전 건립을 공포하시고 2년 후인 1983년 5월 9일에는 작고하신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감리로 기공식을, 그리고 2년 후인 1985년 12월 14일에는 환희에 가득 찬 주님의 큰 축복이 우리 나라와 우리 겨레, 또한 인접한 아시아 대륙과 그 민족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올 12월 14일이면 성전이 헌납된 지 만 10년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이 서울 성전에서는 한 해에 약 12만 명이 성전에서의 은사, 즉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헌납된 이래 우리는 1992년말에야 약 125,000명이 이 축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도 체계적으로 갖지 못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조상을 위하는 축복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이를 것을 7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10년이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3년 반으로 줄인 기간에 12만 명에게 주님의 은사가 베풀어지도록 노력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즉 3년 반, 약 820일에 하루 146명의 조상이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하루 평균 100명의 조상이 엔다우먼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추천서 소유자를 40% 추가하는 일, 또는 한 분 한 분이 1년에 10번 오시던 것을 14번 오시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는데 우리의 봉사가 40%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주저한단 말입니까? 왜 주저해야 하냐요? 누구를 위하는 일인데요?

서울 성전은 이제 각 스테이크 별로 단독으로 성전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스테이크 식구들이 한 날 한 저녁에 한 자리에 모여 조상들을 위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가족이 감독단과 함께 스테이크 부장단을 모시고 오순도순 노인들을 모시고 자손들을 이끌고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인도하며, 자손들은 노인들을 모시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나날의 생활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여 그 힘을 보양해야 할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교회 안팎의 많은 부모들은 세상을 삼키려 몰아치는 사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의식과 관련된 능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맺는 성약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성전은 악한 힘을 막을 수 있고 또 막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고 성전을 방문하고 주님과 가까이 산다면 우리의 가족은 안전할 것이며, 자녀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상에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서도 조상들과 함께 천국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에서 봉사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집에서,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봉사가 될 성전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의 모범으로서, 특별히 박남수 부장 부부는 1986년 1월부터 성전 선교사, 성전장 보조, 성전장 보좌 및 메이트론 보조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름에 봉사하고 계셔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음에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전 의식은 우리를 향상시키고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은 도덕에 관한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바쳐 높은 이상을 추구하여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성약을 맺게 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받는 축복, 은사는 어떤 특권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합당한 생활과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주님의 집에 가서 의식을 받고 축복과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전 헌납하던 날

최옥환 형제

서울 성전 헌납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날을 회고하며 주의 그 크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1985년 12월 14일은 좀 쌀쌀한 날씨였으나 맑게 개인 날씨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최초로 한국 서울 성전이 하나님께 헌납되던 날 유난히도 밝은 아침 햇빛! 아름다운 석조 건물의 위용이며 침탑 꼭대기 위의 황금 빛 모로나이 천사상, 푸른 남쪽 하늘을 향하여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 예의 지국의 백성들에게 또한 조상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과 구원의 약속을 전해 주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영원토록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정각에 당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사회로 헌납식 첫 모임이 시작되었고, 개회 기도를 맡은 저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주님의 집에서 예언자를 모시고 흰 옷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민족을 축복하셔서 서울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조상들이 이곳에서 구원의 의식을 받도록 기원하였으며, 회개의 축복으로 의롭게 되며 가정에 평강이 함께 하도록 간구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순서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머릿돌을 시멘트로 봉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순서에 많은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된 축복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이어서 오전 10시 30분에 헌납식이 시작되었고 아름다운 연합 합창단의 합창에 이어 한인상 장로님의 개회 기도가 이어졌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헌납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한국 전쟁 후 몇몇 군인 형제들에 의해서 이 땅에 전해지고 선교부가 서고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이 성스러운 주님의 집이 보호되며 조상들을 구원하며

영원한 가족 인봉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며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기원하는 요지의 헌납 기도는 주께서 가납하시는 성스러운 축복 기도요, 온 백성이 의롭게 살아 가야 할 성약의 기도였습니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충만하여 말일의 영광이 내림하누나 옛날의 시현과 축복 회복되며 천사들도 세상 다시 찾아 주네 천국 무리 함께 찬송 부르오니 호산나 호산나 주와 어린양 영광 들리세 높이 계시는 그들께 앞으로 영원히 아멘 아멘” 이 찬송을 높이 부르며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서울 성전! 호산나를 외치는 의로운 백성들! 뜨거움과 감사함으로 눈물짓는 성도들! 전국에서 모여든 성도들의 열정과 신앙과 헌신과 사랑의 헌납이 더욱 모임을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그 날은 저의 생애 동안 가장 감명 깊고 은혜 충만한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간절한 소망을 이루게 해 주는 날이었습니다. 1970년 여름 하와이 성전에서 부부 인봉을 받고 소망했고, 1973년 봄,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서 시온의 서울 스테이크를 조직하신 후에도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했고, 1975년과 1980년 한국 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1980년 한국 대회 다음 날 10월 27일은 동경 성전 헌납식에 참여하여 서울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이 땅에 임하여 이렇게 빨리 성전을 주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이 땅에 시온의 경계가 넓혀지도록 의로움에 의로움을 더하겠습니다. 좀더 부지런해지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헌신하겠습니다. 독일 성전 헌납 후에 독일에 통일을 주듯이 이 나라에 평화와 통일을 주시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회복된 복음의 참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두번째 서울 성전장으로 부름받은 팔머 형제(왼쪽에서 세번째)를 공항에서 영접하는 최옥환 형제(가운데), 그 앞에 슬로바 초대 성전장이 보인다.

주님의 성전을 통하여

조만구 형제(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

진 눈깨비가 대지를 온통 하얗게 덮던 날, 늘어선 회원들 사이에서 입장할 순서를 기다리며 눈비를 맞으며 손을 호호 불면서도 성전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의 열기로 뜨거운 가슴을 억제 못했던 벽찬 헌납의 순간들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은 모든 것이 당연시되고 자연스레 성전이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버렸지만 성전 발표가 있던 1981년 4월은 한국 성도들에게 꿈이요, 환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전 건축과 헌납을 위한 성도들의 열의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모습들은 시운을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81년 5월 동경 성전에서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하와이 성전, 솔트레이크 조르단 등 여러 성전에서 의식에 참여할 축복을 받았으나 성전 헌납식 날, 우리 성도들과 참석하여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를 부르면서 느낀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헌납을 위해 당시 부대관장으로 모임을 감리하셨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서울 성전 헌납 기도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의 가슴을 전율케 하였습니다. “... 이 집, 곧 당신의 전이 사나운 바람과 폭풍우로부터 보존되며, 땅의 요동으로부터 보존되며, 전쟁이나 소요의 파괴의 힘으로부터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집이 늘 화평의 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사악함과 소음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적대자가 이 전의 정문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이 모두 정한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당시의 감동적이었던 순간 순간을 회상하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10년이

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특히 저 자신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언자의 축복대로 당시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별로 없는 듯한 복잡한 국내의 정세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점차 안정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와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답답한 마음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성전을 통해 주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스테이크 내의 형제 자매들과 성전을 찾는 일은 생활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한 후 저의 가정에 넘친 주님의 손길은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더구나 주변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열심히 성전에 참여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작은 노력에 엄청난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발전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좋지만 더욱 성장하여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성은 더 높은 곳에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성전을 통하여 성도들이 감사를 드리고, 필요한 교훈을 받고 온전케 되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예언자들이 주신 권고대로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성전에서 찾도록 즉각 마음을, 발길을, 성전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님은 제안은 사실 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며, 저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조만구 형제와 가족들

성전기도를 통해 얻은 결혼

김광윤 형제

결혼하기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있어 목포를 다녀오던 길이었습시다. 낮인데도 날씨는 어둡고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시다. 고속 버스에서 신문을 무릎에 얹어 놓은 채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성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시다. 추운 겨울에 눈이 날리는 와중에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던 서울 성전 헌납식 때의 성도들의 모습, 농아들을 위해 수화로 킁글리 장로님의 기도문을 통역할 때 진지하게 고개 끄덕이며 저의 손을 주시하던 농아 지부 회원들의 일이 머리를 스쳐 지나면서 뜨거운 눈물이 뺨에 흘러내리기 시작했습시다. 눈물은 좀처럼 그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흘러내렸습시다. 그때로부터 벌써 6~7년 가량이 지났지만 그칠 새 없이 한참 동안이나 흘러내리던 그 눈물을 잊을 수 없습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물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한국 성전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간증으로 심어 주셨던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시다. 그때부터 한국 성전은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지팡이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시다.

결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이 아닌 예임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저의 반려자도 주님의 계획에 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시다. 결혼에 대한 열망은 장래의 저의 계획을 설정하는 일과 함께 물어 늘 성전 기도에 포함되어 있었습시다. 경기도 안산에서 연수를 받던 중 만리동에서 한달 가량 출퇴근한 적이 있었습시다. 마침 통근 버스는 성전 앞 신촌에서 멈추었습시다. 저는 거의 매일 새벽 6시 30분 경에 성전 뒤의 잔디밭에서 흰 벽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저의 장래와 결혼에 대해 기도한 경험을 잊을 수 없습시다.

성전의 모습 속에 주님의 영이 있었고 거기서 세상적인 해답을 찾고자 했던 일은 결혼한 지금 대단히 가치 있는 노력이었음을 실감합니다. 그 기도는 안산행 버스를 타는 2시간

동안 내내 제 영육에 스며들어 풍성한 영의 단백질과 핵산이 되었습시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장래의 기로를 선택하는 학창 시절의 마지막이라 성전 기도에 매달리려는 저의 열망은 더 커졌습시다. 성도의 벗을 토폴 책과 함께 쌓아 놓고 읽으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서울 성전으로 향할 마음을 다졌습시다. 분명히 서울 성전은 미래에 대한 혼란 속을 헤매는 나의 리아호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행복한 생활을 맞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시다. 성전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광



김광윤 형제와 부인 정소연 자매

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탄 저는 자주 주님의 팔이 내 어깨에 드리워지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귀환 선교사 형제가 어느 날, 아내와 저를 처음으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부산 동래와 해운대 근처에서였습니다. 첫만남이 있는 후 2년이 지나서 우연히 부산에 머무르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장래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미국 여행을 한 달간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채 결혼에 대한 이야기길 진지하게 나눌 사이도 없이 아내는 여행 길에 올랐습니다. 결혼한 후에 안 일이었지만, 아내는 봉사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 하였던 라스베이거스 성전과 성도들의 40년의 피와 땀이 깃든 눈 쌓인 솔트레이크 성전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성전에서 주님께 저와의 결혼에 대해 겸손히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통한 그 기도는 귀국하여 서울 성전에서 기도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내의 비이기적인 마음과 사심 없는 기도,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성전을 찾으며 드렸던 저의 기도의 응답은 일치하여 우린 주님이 지켜 보시는 성전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결혼을 하기 하루 전 날 저녁에 은빛 불빛에 반사 되어 금빛으로 빛나며 신촌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로 나이 천사 상을 보면서 그날이 있기까지 스쳐 지나간 많은 일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저의 고집만으로 일을 성취하려 했던 20대 중반의 일들이 왔다가 지나갔고, 아내를 만나면서 순풍에 돛을 단 듯 진행된 일들도 가슴 속에 가득히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위한 저의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고, 긴 강가를 지나 모래 언덕을 올라섰을 때 저의 손목을 잡아 주시고, 한켠에서는 다른 길을 돌아온 아내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그 손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성전은 성도된 자들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고, 성도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훌륭한 리아호나가 됨을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삼천명의 가족회원

이병환 형제

하 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400여년 전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알려진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5, 6; 니파이삼서 25:5, 6)

그리고,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 예언은 성취되었으니 곧,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예언자 엘리야는 (열왕기 하 2:11 참조)-2600년이나 지나서-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지상을 방문하여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인봉의 열쇠를 맡긴 것이다. (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지금부터 7년 전, 우리는 성전 결혼을 하자마자, 조상의 기

록을 찾아 가족 기록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접 성전 의식을 받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당시 나의 부계 족보는 형님이 한 부를 갖고 계셨으나,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님댁 출입을 금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것을 구해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친척 중 한 분이 족보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그 분을 찾아 뵈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주소를 알아내어 우리는 벅찬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버스를 네 번이나 갈아 타고 택시까지 대절해야 하는 시골 초행길이었지만, 별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었다. 그 분은 고회를 넘기신 연로하신 분이셨으나, 나의 이름을 듣고 금방 알아보시더니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뵈게 된 목적-돌아가신 조상의 구원에 관한-을 아주 흥미 있게 경청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더니 뜻 밖의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제언을 하셨다.

원래 족보를 펴낼 때에는 주문받는 수만큼 발행하기 때문에(인쇄비 관계), 발행 부수가 한정되어 여분이 없기 마련이지만, 어느 한 친척이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가져 가지 않는 것이 한 부 남아 있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내가 구입해도 좋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언을 받아들였다.

그 후, 나는 거의 미치다시피 가족 기록서 작성에 온 정력을 쏟았다.

처음에는 족보를 해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기록하는 속도도 제법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매달 한 번 이상 아내와 함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당시 광주에서 매달 한 번 이상 성전을 방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그 동안 기록한 가족 기록서를 성전에 제출하곤 했다. 이렇게 1년 이상 계속했더니 당시에는 가장 많이 제출한 회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지금은 여러 회원들이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제출했던 가족 기록서 수는 약 1500여장이었으므로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조상이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1990년 1월 12일과 2월 16일은 성전 의식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의 기록으로 집행되기도 했었다. 나는 그 날을 '전주 이 씨 장천군파의 날'로 불렀다. 그날 의식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렸다.

돌이켜 보면 10여년 전, 장로교 집안에서 유일하게 나 혼자만 몰몬이라 해서, 장로교 목사인 형님 댁에서 쫓겨나 유리하다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성전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그러나 이제는, 비록 돌아가신 조상들이라고는 하지만, 회복된 복음 안에서 우리 가족 회원의 수가 3000명을 훨씬 넘어 서게 된 것이다. 지금은 나의 모계 4대와 아내의 부계 4대 그리고 모계 43대 직계를 전부 마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 가족 기록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진실로 이 복음은 위대하고, 이 가족 역사 사업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바칠 수 있는 내 조상의 기록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교리와 성약 128:24 참조)

끝으로, 조상의 기록을 찾거나,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엘리야의 영의 도움으로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한다. 나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영의 도움으로 이 사업을 기쁨으로 성취할 수 있었다. 아직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높지만,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하여 시온산의 구원자로 등장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의무를 결코 가벼이 넘겨 버리지만 않는다면, (한글판,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10, 313, 350쪽)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축복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임이라.” (교리와 성약 128:15) □



자신이 기록한 가족 기록서를 앞에 두고 앉은 이병환 형제.



그 날 이후 우리는



김영주 자매, 김성곤 형제

19 85년 12월 14일. 이날 한국에서는 최초로 서울 성전이 헌납되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방문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더 특별한 날이었다. 성전 내부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대관장단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가까이에서 뵈 수 있었고, 그 분들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듣고, 머릿들을 놓는데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국민 학생이었던 우리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결석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성전 정초식에 참석했다. 날씨가 추웠지만 성전 안에서는 포근한 느낌을 받았다. 정말 깨끗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머릿들을 놓을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그 사진이 성도의 벗에 실렸었다.) 또 해의 왕국실에도 들어가 그 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다른 방에서

TV 모니터를 통해 보고 계셨고, 다들 감격해 하셨다.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고, 청소년 시절에는 대리 침례를 통해 성전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벌써 그 날 이후 10년이 흘러 우리는 그 때 그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동안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우리 가족이 다 회원이라는 큰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초등학교의 어린이였지만 이제는 모두 독신이 되었다. 아직 성전 엔다우먼트는 받지 않았다. 잘 준비해서 추천서를 받아 성전에서 기쁘게 봉사하겠다. 성전에서의 봉사에 대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방문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하면, 이 세상과 영의 세상 사이의 장막이 매우 얇아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어 우리가 방문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봉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의 프로그램 모두가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 발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 □

편집자주: 김영주 자매와 김성곤형제는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회원이다.



서울 성전의 머릿들을 놓는데 참여한 김영주 자매(오른쪽 두번째)와 김성곤 형제(오른쪽 세번째)

성도의 벗 1995년 색인

본 색인은 주제 색인과 저자 색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제색인

7

가르침

겨자씨 선생님, 자넷 실러, 6월, 24쪽
 기회를 포착함, 클라우디아 엘리야스, 8월, 38쪽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7쪽
 주님의 비유, 제이 엠 토드, 3월, 32쪽

가정

사랑으로 둘러싸인 식탁, 리그랜드 알 커티스, 7월, 81쪽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1월, 23쪽

가정 복음 교사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1월, 80쪽

가정 복음 교육

"망루의 파수꾼", 헬베시오 마틴스, 7월, 42쪽
 목자의 책임,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 44쪽

가정의 밤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1월, 80쪽
 어린이들이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 미셸린 피 그래스리, 1월, 12쪽-14쪽
 어린이를 가르치라, 패트리샤 피 피네가, 1월, 78쪽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1월, 23쪽

가족 관계(부모의 역할 참조)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1월, 80쪽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 65쪽
 듣는 귀, 테드 힌드매쉬, 4월, 46쪽
 따뜻하게 하는 말, 사라 브라운 닐슨, 3월, 30쪽

목자의 책임,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 44쪽
 "방주를 지으라", 더블류 돈 래드, 1월, 28쪽
 부모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프 멜빈 하몬드, 2월, 16쪽

사랑으로 둘러싸인 식탁, 리그랜드 알 커티스, 7월, 81쪽

선교 사업의 씨를 뿌림, 게일린 왓슨, 8월, 어린이란 8쪽

선택된 여성, 엘 톰 페리, 7월, 71쪽
 성약의 자녀, 러셀 엠 벨슨, 7월, 32쪽
 성전 사업은 가족이 해야 합니다, 제이 벨라드 워시번, 7월, 11쪽

십대 청소년과의 대화, 윌리엄 지 다이어, 11월, 28쪽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 6월, 18쪽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1월, 23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결혼, 조 제이 크리스틴슨, 7월, 63쪽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9쪽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49쪽

테이프에 녹음된 우리 가족의 신앙전서, 캐롤 가필드 시그밀러, 2월, 46쪽

형제들, 세이란 킨드레드, 6월, 어린이란 6쪽

가족 기도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1월, 80쪽
 어린이들이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 미셸린 피 그래스리, 1월, 12쪽-14쪽
 어린이를 가르치라, 패트리샤 리 피네가, 1월, 78쪽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1월, 23쪽

가족 역사(성전, 성전 사업 참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7쪽

엘리아의 영, 러셀 엠 벨슨, 1월, 84쪽

간증(개심, 신앙 참조)

간증의 힘, 힐러리 헌트, 2월, 24쪽
 간증은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어요, 브라이언 테일러, 4월, 어린이란 6쪽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59쪽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1월, 20쪽
 겨자씨 선생님, 자넷 실러, 6월, 24쪽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엘레인 엘 켈, 1월, 89쪽

기도와 기다림, 저스틴 시 부캐넌, 8월, 10쪽
 나를 위해 창조되었네, 베싸니 엠 갈브레이스, 11월, 42쪽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벨 파티카 웬, 9월, 8쪽

내 자신에 대해 배움, 데릭 터커, 6월, 20쪽
 회복된 진리, 엠 러셀 벨라드, 1월, 65쪽

감사

감사놀이, 레베카 엠 테일러, 2월, 6쪽
 "감사함도 더욱", 11월, 25쪽

네이트의 감사, 클레어 미시카, 8월, 어린이란 14쪽

개심(간증 참조)

간증의 힘, 힐러리 헌트, 2월, 24쪽
 나의 영혼의 묘약, 미켈라 블라도바, 6월, 26쪽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벨 파티카 웬, 9월, 8쪽

떨리는 걸음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앨버트 피터스, 6월, 28쪽

영원한 가족, 베레니스 베루벤 모데드, 3월, 26쪽

요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2월, 8쪽
 이탈리아어로 된 나의 첫번째 책, 살바토레 플로레, 3월, 8쪽

저는 시도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 허샘, 4월, 40쪽

개인 발전

신성한 보물, 트루만 지 매드슨, 5월, 30쪽

개인의 성장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나 루고보니 루즈, 11월, 27쪽

견딤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두와도 아알라, 7월, 30쪽

결혼

결혼 생활과 산상수훈, 폴 케이 브라우닝, 9월, 28쪽

따뜻하게 하는 말, 사라 브라운 닐슨, 3월, 30쪽

성약의 자녀, 러셀 엠 벨슨, 7월, 32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결혼, 조 제이 크리스틴슨, 7월, 63쪽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49쪽

의로운 선택을 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37쪽

결손

사랑의 성약,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7월, 26쪽

"은유 찬송 더욱 허락함소서", 5월, 25쪽
 장점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5월, 10쪽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7월, 25쪽

경건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59쪽

어린이들이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 미셸린 피 그래스리, 1월, 12쪽

어린 친구를 위하여, 다이아나 에커셀 쉐슨, 11월, 어린이란 4쪽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9쪽

경전

건학, 부르스 티 포브스, 11월, 어린이란 11쪽

사랑과 배움,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 94쪽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욱스, 1월, 9쪽
경전 공부

결혼 생활과 산상수훈, 폴 케이 브라운, 9월, 28쪽

경전을 소리내어 읽음, 페리와 야나 브렛, 9월, 24쪽

“그분의 말씀으로 더 많은 소망을”, 10월, 25쪽

나는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카렌 로프그린, 8월, 어린이란 6쪽

나의 성경, 소나 벨로린, 8월, 24쪽

“너희는 열매를 먹게 되리니”, 제니트 시 헤일즈, 7월, 90쪽

선택할 시간,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96쪽

성경 이야기, 델린 에이치 욱스, 3월, 어린이란 10쪽

시간을 찾음, 론다 헨릭슨, 5월, 24쪽

이사야와 타임 머신, 패트리샤 워녹, 3월, 어린이란 13쪽

테이프에 녹음된 우리 가족의 신약전서, 케를 가필드 시그밀러, 2월, 46쪽

계명

나는 계명을 지킬 것을 믿는다, 카렌 로프그린, 3월, 어린이란 8쪽

계시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59쪽

하늘에서 온 계시, 엘 알든 포터, 1월, 62쪽

회복된 진리, 엠 러셀 벨라드, 1월, 65쪽

고결한 성품

고결한 성품, 조셉 비 위스린, 11월, 42쪽

고백

용서를 구함,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74쪽

공예품

12월, 어린이란 13쪽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50쪽

교회 회원

주님의 나의 힘이시다, 아나 루고보니 루즈, 11월, 27쪽

구애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결혼, 조 제이 크리스텐슨, 7월, 63쪽

구원의 계획

물문경 번역의 기적,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7월, 9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결혼, 조 제이 크리스텐슨, 7월, 63쪽

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엠 러셀 벨라드, 7월, 22쪽

권능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7쪽

권리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68쪽

금식

어떻게 하면 좀더 의미있는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5월, 26쪽

기도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59쪽

기도와 기다림, 저스틴 시 부캐넌, 8월, 10쪽

나의 성경, 소나 벨로린, 8월, 24쪽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리차드 시 에즐리, 1월, 39쪽

더 이상 의인이 아니다, 존 넬슨 슈나이더, 11월, 32쪽

로빈슨 크루소 섬에서 생긴 일, 패트리샤 코바루비아스 솔라, 3월, 40쪽

사랑으로 둘러싸인 식탁, 리그랜드 알 커티스, 7월, 81쪽

선택할 시간,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96쪽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두와도 아알라, 7월, 30쪽

유일하게 참되고 유효한 기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월, 41쪽

이타코아티아라에서 드린 기도, 10월, 어린이란 2쪽

장군, 엘마 제이 에이즈, 9월, 어린이란 12쪽

저는 시도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 허샘, 4월, 40쪽

L

나에아 배넷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넷 토마스, 9월, 46쪽

남 아프리카

소웨토에서의 세미나리, 페기 에이치 앤더슨, 8월, 12쪽

노래

마리아의 자장가, 쟈 언더우드 핀보르와 다윈 윌포드, 12월, 어린이란 4쪽

신앙, 비트리스 고프 잭슨과 마이클 핀린슨 무디, 9월, 어린이란 6쪽

정의반 노래, 6월, 어린이란 12쪽

황금빛 봄날, 버지니아 모간 카메이어와 크로포드 게이츠, 4월, 어린이란 13쪽

뉴스 속의 친구들

11월, 어린이란 14쪽

T

단합

사랑으로 둘러싸인 식탁, 리그랜드 알 커티스, 7월, 81쪽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 60쪽

대관장단

목자의 책임,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 44쪽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50쪽

대관장단 메시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고든 비 힝클리, 6월, 2쪽

교회 교육 기구

다뉴브의 세미나리, 마빈 케이 가드너, 4월, 34쪽

소웨토에서의 세미나리, 페기 에이치 앤더슨, 8월, 12쪽

아르헨티나에 이는 변화의 물결, 래리 에이 힐러, 2월, 10쪽

교회의 부름

성전 출입구에서, 테니스 레이, 12월, 10쪽

교회 조직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7쪽

분명한 희망, 고든 비 힝클리, 4월, 2쪽

성공을 위한 공식, 토마스 에스 몬슨, 8월, 2쪽

성전 참여를 권고받는 사람들, 하워드 더블류 헌터, 5월, 2쪽

손과 마음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2월, 2쪽

신앙의 기도, 토마스 에스 몬슨, 3월, 2쪽

신앙: 참된 종교의 진수, 고든 비 힝클리,

10월, 2쪽

웃을 일이 아님, 카밀레 뉴겐트, 9월, 14쪽
이 축복받은 시대, 고든 비 힝클리, 9월, 2쪽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 2쪽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12월, 2쪽

도밍고 리아오

도밍고 리아오의 승리, 리차드 엠 롬니, 12월, 40쪽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

2월, 20쪽

4월, 42쪽

근

로렌 시 던

로렌 시 던 장로, 10월, 어린이란 6쪽

로버트 디 헤일즈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명예롭게 귀환함, 래린 곤트, 4월, 26쪽

리차드 시어포스

우주 왕복선에서 본 광경, 3월, 29쪽

구

마라우 브라더스

타히티 파피테의 마라우 브라더스, 비비안 폴슨, 3월, 어린이란 2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목자의 책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41쪽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86쪽

매튜 크록

오스트레일리아의 캐슬리그의 매튜 크록, 리차드 엠 롬니, 9월, 어린이란 2쪽

모범

아네트 안토벨리, 10월, 24쪽
엄마의 자취를 따라서, 다비다 달튼, 11월, 19쪽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의 힘, 조 제이 크리스텐슨, 8월, 16쪽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1월, 23쪽

모성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배를 저어 감, 지에코 엔 오까자키, 1월, 92쪽
의로은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49쪽

물문경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1월, 80쪽
경전을 소리내어 읽음, 페리와 야나 브랫, 9월, 24쪽

물문경 번역의 기적,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7월, 9쪽

미대륙의 크리스마스, 12월, 어린이란 2쪽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96쪽

이탈리아어로 된 나의 첫번째 책, 살바토레 플로레, 3월, 8쪽

회복된 진리, 엠 러셀 벨라드, 1월, 65쪽

물문경 이야기

힐라멘의 이천 용사들, 4월, 어린이란 14쪽
대장 모로나이와 페이호랜, 6월, 어린이란 2쪽
왕정과 대 자유파, 2월, 어린이란 2쪽
헤이고드, 8월, 어린이란 16쪽

물문 메시지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해라", 2월, 33쪽

나

바울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오는 장소들, 켄트 피 잭슨, 10월, 34쪽

발전

과거에 집착함, 존 비 피쉬, 4월, 18쪽

방문 교육

주님을 대신하여, 에바 시 빈, 11월, 41쪽

방문 교육 메시지

"감시함도 더욱", 11월, 25쪽
"그분의 말씀으로 더 많은 소망을", 10월, 25쪽

"더욱 순결하게 됨", 9월, 25쪽

"더욱 신성하고 거룩함", 12월, 25쪽

"봉사에서 큰 기쁨을 얻음", 4월, 25쪽

"성품도 더욱 구세주처럼", 2월, 25쪽

"은유 찬송 더욱 허락함소서", 5월, 25쪽

"우리 구세주에 대한 더 많은 신앙, 주님에 대한 더 많은 신뢰", 3월, 25쪽

"죄를 더욱 슬퍼함", 8월, 25쪽

배도

배도와 회복,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83쪽

하늘에서 온 계시, 엘 알든 포터, 1월, 62쪽

회복된 진리, 엠 러셀 벨라드, 1월, 65쪽

복음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46쪽

깊은 뿌리, 조셉 비 위스린, 1월, 75쪽

유일하게 참되고 유효한 기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월, 41쪽

복지 사업

무한한 욕구, 유한한 자원, 글렌 엘 페이스, 3월, 16쪽

복지 프로그램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46쪽

배를 저어 감, 지에코 엔 오까자키, 1월, 92쪽

본 제이 페더스톤

본 제이 페더스톤, 레베카 엠 테일러, 8월, 어린이란 12쪽

봉사

감독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방법, 아넷트 팩스맨 보웬, 8월, 20쪽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1월, 20쪽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사라 케스터, 11월, 24쪽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고든 비 힝클리, 6월, 2쪽

무한한 욕구, 유한한 자원, 글렌 엘 페이스, 3월, 16쪽

"봉사에서 큰 기쁨을 얻음", 4월, 25쪽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트만 렉터 이세, 1월, 25쪽

성공을 위한 공식, 토마스 에스 몬슨, 8월, 2쪽

성전 출입구에서, 데니스 레이, 12월, 10쪽

손과 마음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2월, 2쪽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96쪽

아담의 하루, 제니 에스 해치, 6월, 어린이란 14쪽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 2쪽

줄리아 마빔벨라, 테일 르바론, 3월, 42쪽

최고의 선물, 그레첸 에이 월취, 2월, 14쪽

부도덕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 65쪽

부모의 역할(가족 관계 참조)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 65쪽

다이빙을 하기엔 너무 늙었어, 헤더 클래스, 5월, 어린이란 6쪽

듣는 귀, 테드 힛트매쉬, 4월, 46쪽

목자의 책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44쪽

배도와 회복,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83쪽

부모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프

멜빈 하몬드, 2월, 16쪽
 시간을 찾음, 론다 헨릭슨, 5월, 24쪽
 십대 청소년과의 대화, 윌리엄 지 다이어, 11월, 28쪽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 6월, 18쪽
 어린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임, 케이 린 웨이크필드, 8월, 34쪽
 엄마의 자취를 따라서, 다비나 달튼, 11월, 19쪽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1월, 23쪽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68쪽
 우리 신권의 유산, 제프리 알 홀런드, 7월, 37쪽
부활(예수 그리스도 참조)
 깊은 뿌리, 조셉 비 워스틴, 1월, 75쪽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알렉산더 비 모리스 장로, 4월, 10쪽
부활절
 부활절 회상, 앤드류 더블류 피터슨, 7월, 79쪽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포오타다운에 사는 클레어 매기, 리처드 엠 롬니, 5월, 어린이란 2쪽
 허물어지고 있는 장벽, 리처드 엠 롬니, 6월, 12쪽
브라질
 이타코아티아라에서 드린 기도, 크리스레인 다실바, 브라질, 10월, 어린이란 2쪽
브이 델러스 메릴
 친구가 친구에게: 브이 델러스 메릴, 2월, 어린이란 4쪽
비유
 밀과 가라지, 콜리스 클레이튼, 5월, 어린이란 10쪽
비판
 "너희로 실족지(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페리 엠 크리스틴슨, 10월, 28쪽

入

사도들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7쪽
 특별한 증인들, 4월, 어린이란 8쪽
사랑
 감동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방법, 아넷 팩스맨 보웬, 8월, 20쪽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그들은 성탄절 정신까지 흠칠 수는 없었다.
 데이 콧처, 12월, 18쪽
 기회를 포착함, 클라우디아 엘리야슨, 8월, 38쪽
 깊은 뿌리, 조셉 비 워스틴, 1월, 75쪽
 동생이 던진 질문, 켄 체케츠, 5월, 8쪽
 사랑과 배움,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 94쪽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트만 렉터이세, 1월, 25쪽
 성공을 위한 공식, 토마스 에스 몬슨, 8월, 2쪽
 손과 마음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2월, 2쪽
 어린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임, 케이 린 웨이크필드, 8월, 34쪽
 오로지 승자만 있었다, 샤론 러커, 8월, 19쪽
 의로운 선택을 함, 리처드 지 스코트, 1월, 37쪽
 주님을 대신하여, 이바 시 빈, 11월, 41쪽
 형제들, 세이라 킨드레드, 6월, 어린이란 6쪽
 형제를 지키는 자,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43쪽
사모아
 떨리는 걸음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엘버트 피터스, 6월, 28쪽
사탄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 2쪽
산아 제한
 성전 사업은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이 벨라드 워시번, 7월, 11쪽
상징
 주님의 비유, 제이 엠 토드, 3월, 32쪽
선교 사업
 깊은 뿌리, 조셉 비 워스틴, 1월, 75쪽
 낙원에서의 150년, 비비안 폴슨, 3월, 어린이란 4쪽
 내 옆의 천사들, 라라 마요 뱅거터, 9월, 33쪽
 더 깊은 상처를 치료함, 폴 비 더굿, 4월, 22쪽
 모든 사람이 듣게 함,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7쪽
 선교 사업의 씨를 뿌림, 게일린 왓슨, 8월, 어린이란 8쪽
 선교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탄절, 재너 존슨 스티드, 12월, 어린이란 10쪽
 셋이서 이룬 조화, 아드리안 고스틱, 2월, 42쪽
 아프리카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발전, 제임스 오 메이슨, 1월, 30쪽
 에스토니아에 개설된 교회를 증언하도록

선택됨, 바바라 루이스, 9월, 10쪽
 엘리야의 영, 러셀 엠 넬슨, 1월, 84쪽
 여러분이 보이는 모법의 힘, 조 제이 크리스턴슨, 8월, 16쪽
 영원한 포용, 에드워드 판토라스 솔리스, 4월, 8쪽
 의를 택하라, 엘 톰 페리, 11월, 어린이란 6쪽
 타히티의 원, 제닛 토마스, 3월, 10쪽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87쪽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12월, 2쪽
성결케 함
 "더욱 신성하고 거룩함", 12월, 25쪽
성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엘레인 엘 잭, 1월, 89쪽
 깊은 뿌리, 조셉 비 워스틴, 1월, 75쪽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59쪽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움, 데이비드 모라자 브리토, 10월, 46쪽
 성전 사업은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이 벨라드 워시번, 7월, 11쪽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96쪽
 영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 16쪽
 영원한 포용, 에드워드 판토라스 솔리스, 4월, 8쪽
 의로운 선택을 함, 리처드 지 스코트, 1월, 37쪽
 저는 영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계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11월, 20쪽
 주님을 대신하여, 이바 시 빈, 11월, 41쪽
 하늘에서 온 계시, 엘 알든 포터, 1월, 62쪽
성약(침례, 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사랑의 성약,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7월, 26쪽
 성약의 자녀, 러셀 엠 넬슨, 7월, 32쪽
 성약을 찬미함, 보니 디 파킨, 7월, 77쪽
 성전 사업은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이 벨라드 워시번, 7월, 11쪽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세실 오 사무엘슨, 7월, 30쪽
성전 및 성전 사업(가족 역사 참조)
 "너희는 거룩한 곳에 살지니", 랜스 비 위크맨, 1월, 82쪽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7쪽

성공에 이르는 값진 원리,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월, 27쪽

성전 사업은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이 벨라드 워시번, 7월, 11쪽

성전 참여를 권고받는 사람들, 하워드 더블류 헌터, 5월, 2쪽

엘리아의 영, 러셀 엠 벨슨, 1월, 84쪽

영원한 가족, 베레니스 베루벤 모데드, 3월, 26쪽

영원한 포옹, 에드와드 판토하스 솔리스, 4월, 8쪽

음악을 통한 예배, 달린 에이치 옥스, 1월, 9쪽

이타코아티아라에서 드린 기도, 10월, 어린이란 2쪽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87쪽

성찬 어떤 언어로든지, 윌리엄 파울리, 12월, 8쪽

성회 내부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메릴 제이 배이트먼, 7월, 13쪽

성회, 데이비드 비 헤이트, 1월, 14쪽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로버트 디 헤일즈, 7월, 15쪽

우리 신권의 유산, 제프리 알 홀런드, 7월, 37쪽

세상적인 것 영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 16쪽

소망 “그분의 말씀으로 더 많은 소망을”, 10월, 25쪽

속죄(예수 그리스도, 회개 참조)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 65쪽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용서를 구함,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74쪽

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엠 러셀 벨라드, 7월, 22쪽

“희망의 밝은 빛”, 닐 에이 맥스웰, 1월, 34쪽

순종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1월, 80쪽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 72쪽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1월, 20쪽

나는 법률을 지킬 것을 믿는다, 수잔 엘 워너, 10월, 어린이란 8쪽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고든 비 힝클리, 6월, 2쪽

두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콜린 시 히턴, 4월, 어린이란 10쪽

명예롭게 귀환함, 로버트 디 헤일즈, 9월, 어린이란 5쪽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트만 렉터 이세, 1월, 25쪽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우, 데이비드 모라자 브리토, 10월, 46쪽

용서를 구함, 리차드 시 스코트, 7월, 74쪽

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엠 러셀 벨라드, 7월, 22쪽

장군, 앨마 제이 에이츠, 9월, 어린이란 12쪽

저는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카렌 로프그린, 5월, 어린이란 8쪽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 2쪽

집으로 돌아옴, 클라인 디 배러스, 11월, 어린이란 5쪽

신권 나는 신권이 내 삶을 축복한다는 것을 믿습니, 6월, 어린이란 10쪽

모든 사람이 듣게 함,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7쪽

목자의 책임,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 44쪽

신권을 존중함, 에디 진 곤잘레스 이세, 5월, 46쪽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7쪽

어떤 언어로든지, 윌리엄 파울리, 12월, 8쪽

우리 신권의 유산, 제프리 알 홀런드, 7월, 37쪽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50쪽

자비- 신성한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57쪽

신앙(간증 참조)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59쪽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1월, 20쪽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고든 비 힝클리, 6월, 2쪽

매를 저어감, 지에코 엔 오까자끼, 1월, 92쪽

식량을 위한 기도, 주아나 리디아 캄포스 몰리나, 2월, 41쪽

신앙의 기도, 토마스 에스 몬슨, 3월, 2쪽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7쪽

신앙: 참된 종교의 진수, 고든 비 힝클리, 10월, 2쪽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2쪽

“우리 구세주에 대한 더 많은 신앙, 주님에 대한 더 많은 신뢰”, 3월, 25쪽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두와도 아얄라, 7월, 30쪽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86쪽

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엠 러셀 벨라드, 7월, 22쪽

카메룬의 그림, 루스 코스비, 5월, 42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2월, 33쪽

“희망의 밝은 빛”, 닐 에이 맥스웰, 1월, 34쪽

신앙개조 안드리아를 위한 신앙의 응답, 루스 릴리엔퀴스트, 5월, 어린이란 13쪽

신약전서 가장 위대한 설교, 데이비드 더블류 백맨, 2월, 26쪽

밀과 가라지, 콜리스 클레이튼, 5월, 어린이란 10쪽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오는 장소들, 켄트피잭슨, 10월, 34쪽

비옥한 땅, 루스 릴리엔퀴스트, 8월, 어린이란 2쪽

예수의 침례, 11월, 어린이란 2쪽

주님의 비유, 제이 엠 토드, 3월, 32쪽

테이프에 녹음된 우리 가족의 신약전서, 캐롤 가필드 시그밀러, 2월, 46쪽

실족(마음이 상함) “너희로 실족지(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페리 엠 크리스티슨, 10월, 28쪽

심심풀이 부활절 바꾸니, 시 에이 우드리프, 4월, 어린이란 16쪽

2월, 어린이란 8쪽

3월, 어린이란 12쪽

5월, 어린이란 12쪽

6월, 어린이란 5쪽

8월, 어린이란 5쪽

9월, 어린이란 8쪽

10월, 어린이란 4쪽

11월, 어린이란 10쪽

십일조 우리의 신권 유산, 제프리 알 홀런드, 7월, 37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결혼, 조 제이 크리스티슨, 7월, 63쪽

아론 신권

모든 사람이 듣게 함,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7쪽

목자의 책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44쪽

아르헨티나

나는 신앙개조를 믿는다, 케어린 로우프그린, 2월, 어린이란 12쪽

독생자를 닮았다, 알 발 존슨, 2월, 34쪽

아르헨티나에 이는 변화의 물결, 래리 에이 힐러, 2월, 10쪽

아메리카 인디언

남서부 말일성도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술품, 성스러운 유대, 9월, 34쪽

애경

다이빙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 헤더 클래스, 5월, 어린이란 6쪽

어린이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1월, 80쪽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2쪽

어린이들이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 미셸린 피 그래스리, 1월, 12쪽-14쪽

어린이를 가르치라, 패트리샤 피 피네가, 1월, 78쪽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9쪽

어린 친구들을 위한 난

초등학교에서 경건함, 3월, 어린이란 7쪽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에 개설된 교회를 증언하도록 선택됨, 바바라 루이스, 9월, 10쪽

역경

깊은 뿌리, 조셉 비 위스틴, 1월, 75쪽

"은유 찬송 허락합소서", 5월, 25쪽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1월, 23쪽

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엠 러셀 블라드, 7월, 22쪽

연민

오로지 승자만 있었다, 샤론 러커, 8월, 19쪽

영성

"성품도 더욱 구세주처럼", 2월, 25쪽

영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 16쪽

이 축복받은 시대, 고든 비 힝클리, 9월, 2쪽

영원한 결혼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니", 랜스 비 위크맨, 1월, 82쪽

예수 그리스도(속죄, 부활 참조)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1월, 20쪽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 65쪽

깊은 뿌리, 조셉 비 위스틴, 1월, 75쪽

내부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메릴 제이 베이트먼, 7월, 13쪽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니", 랜스 비 위크맨, 1월, 82쪽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4월, 어린이란 2쪽

독생자를 닮았다, 알 발 존슨, 2월, 34쪽

동생이 던진 질문, 켄 케체츠, 5월, 8쪽

"방주를 지으라", 더블류 돈 래드, 1월, 28쪽

배도와 회복,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83쪽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7쪽

부활절 회상, 앤드류 더블류 피터슨, 7월, 79쪽

분명한 희망, 고든 비 힝클리, 4월, 2쪽

"신앙의 방패",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7쪽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96쪽

어린이들이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 미셸린 피 그래스리, 1월, 12쪽-14쪽

영적인 갈등을 해소해 주는 생수, 조셉 비 위스틴, 7월, 18쪽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 및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조명, 6월, 32쪽

예수님의 탄생, 12월, 32쪽

용서를 구함,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74쪽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9쪽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68쪽

주님의 비유, 제이 엠 토드, 3월, 32쪽

크리스마스는 상징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제프리 알 홀런드, 12월, 12쪽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87쪽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7월, 25쪽

회복된 진리, 엠 러셀 블라드, 1월, 65쪽

"희망의 밝은 빛", 닐 에이 맥스웰, 1월, 34쪽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50쪽

예술품

남서부 말일성도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술품, 성스러운 유대, 9월, 34쪽

예언자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로버트 디 헤일즈, 7월, 15쪽

오스트레일리아

뛰어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5월, 34쪽

요셉 스미스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1월, 20쪽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 72쪽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니", 랜스 비 위크맨, 1월, 82쪽

배도와 회복,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83쪽

요셉 스미스, 참된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6월, 8쪽

유일하게 참되고 유효한 기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월, 41쪽

적이 친구가 됨, 듀앤 시 노울스, 12월, 26쪽

하늘에서 온 계시, 엘 알든 포터, 1월, 62쪽

회복된 진리, 엠 러셀 블라드, 1월, 65쪽

용서

"너희로 실족지(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페리 엠 크리스티슨, 10월, 28쪽

우정

셋이서 이론 조화, 아드리안 고스틱, 2월, 42쪽

우주 여행

우주 왕복선에서 본 광경, 3월, 20쪽

유혹

그것을 빨리 하십시오, 에이치 버크 피터슨, 9월, 42쪽

용서를 구함,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74쪽

장점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5월, 10쪽

육에 속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 65쪽

의사 소통

십대 청소년과의 대화, 윌리엄 지 다이어, 11월, 28쪽

음악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59쪽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9쪽

이야기

감사놀이, 레베카 엠 테일러, 2월, 6쪽

견학, 부르스 티 포프스, 11월, 어린이란 11쪽

네이트의 감사, 클레어 미사카, 8월, 어린이란 14쪽

다이빙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 헤더 클래스, 5월, 어린이란 6쪽

두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콜린 시 허턴, 4월, 어린이란 10쪽

선교 사업의 씨를 뿌림, 게일린 왓슨, 8월, 어린이란 8쪽

선교사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너 존스 스티드, 12월, 어린이란 10쪽

아담의 하루, 제니 에스 해치, 6월, 어린이란 14쪽

안드리아를 위한 신앙의 응답, 루스 릴리엔 퀴스트, 5월, 어린이란 13쪽

이사와와 타임머신, 패트리샤 워늬, 3월, 어린이란 13쪽

장군, 엘마 제이 예이츠, 9월, 어린이란 12쪽

최고의 선물, 그레첸 에이 헐취, 2월, 14쪽

이탈리아

이탈리아어로 된 나의 첫번째 책, 살바토레 플로레, 3월, 8쪽

이해

느낌이 있습니다, 캐더린 킨 포키스, 10월, 어린이란 5쪽

인도주의적 도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60쪽

일지

20일 간의 목표, 웬디 피셔, 8월, 8쪽

스

자녀

성약의 자녀, 러셀 엠 넬슨, 7월, 32쪽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68쪽

자메이카

웃을 일이 아님, 카밀레 뉴겐트, 9월, 14쪽

자부심

여러분 내부의 빛, 고든 비 힝클리, 7월, 98쪽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60쪽

자비

자비- 신성한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57쪽

자유 의지

배도와 회복, 델린 에이치 우스, 7월, 83쪽

엘리아의 영, 러셀 엠 넬슨, 1월, 84쪽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86쪽

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엠 러셀 벨라드, 7월, 22쪽

장애

카메룬의 그림, 루스 코스비, 5월, 42쪽

장점

장점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렌 로프그린, 5월, 어린이란 8쪽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아나 루고보니 루즈, 11월, 27쪽

재난

무한한 욕구, 유한한 자원, 글렌 엘 페이스, 3월, 16쪽

재능

여러분 내부의 빛, 고든 비 힝클리, 7월, 98쪽

전쟁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86쪽

자비-신성한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57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닐 에이 맥스웰, 10월, 16쪽

제자

최고의 설교, 데이비드 더블류 백맨, 2월, 26쪽

제프리 알 홀런드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돈 엘 설, 8월, 26쪽

조상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68쪽

죄

용서를 구함, 리처드 지 스코트, 7월, 74쪽

죽음

내부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메릴 제이 베이트먼, 7월, 13쪽

성약의 자녀, 러셀 엠 넬슨, 7월, 32쪽

줄리아 마빔벨라

줄리아 마빔벨라, 테일 르바른, 3월, 42쪽

지도력

감독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방법, 아넷트 팩스맨 보웬, 8월, 20쪽

지도자를 지지함

성회, 데이비드 비 헤이트, 1월, 14쪽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엘 톰 페리, 1월, 17쪽

회복의 기적, 제프리 알 홀런드, 1월, 31쪽

지라우드 캐리어, 제라드와 애니

제라드와 애니 지라우드 캐리어: 항상 시작함, 바바라 위크맨, 11월, 14쪽

지상

지상의 천국-사건 에세이, 11월, 34쪽

지역 관리 역원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50쪽

지혜의 말씀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50쪽

깊은 뿌리, 조셉 비 위스린, 1월, 75쪽

지혜의 말씀, 10월, 33쪽

하늘에서 온 계시, 엘 알든 포터, 1월, 62쪽

진리

성공을 위한 공식, 토마스 에스 몬슨, 8월, 2쪽

절의 응답

어떻게 하면 좀더 의미있는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5월, 26쪽

저는 영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11월, 20쪽

츠

찬송가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우스, 1월, 9쪽

창작

신성한 보물, 트루만 지 매드슨, 5월, 30쪽

청소년

이 축복받은 시대, 고든 비 힝클리, 9월, 2쪽

체코 공화국

나의 영혼의 묘약, 미켈라 블라도바, 6월, 26쪽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녀의 선교부였다, 루스 맥콤버 프렛과 앤 사우스 닌도르프, 9월, 26쪽

축복사의 축복

나의 기적, 레베카 로우즈, 11월, 12쪽

친구가 친구에게

로렌 시 던 장로, 10월, 어린이란 62쪽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레베카 엠 테일러, 8월, 어린이란 12쪽

브이 델러스 메릴, 2월, 어린이란 4쪽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멜빈 리빗, 5월, 어린이란 4쪽

친구 사귀기

북아일랜드 포오타다운에 사는 클래어 매기, 리처드 엠 롬니, 5월, 어린이란 2쪽

오스트레일리아의 케슬리그의 매튜 크록, 리처드 엠 롬니, 9월, 어린이란 2쪽

이므레, 페테르, 제넷 피터슨, 12월, 어린이란 14쪽

타히티 파피테의 마라우 브라더스, 비비안 폴슨, 3월, 어린이란 2쪽

철레

로빈슨 크루소 섬에서 생긴 일, 패트리샤 코바루비아스 솔라, 3월, 40쪽

침례

- 성약을 찬미함, 보니 디 파킨, 7월, 77쪽
- 어린이를 가르치라, 패트리샤 피 페네가, 1월, 78쪽
- 엘리아의 영, 러셀 엠 벨슨, 1월, 84쪽
- 예수의 침례, 11월, 어린이란 2쪽

ㄱ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맬빈 리빗, 5월, 어린이란 4쪽

카이타노 비엔

가슴 가득한 사랑, 마일스 티 투어슨, 10월, 42쪽

크리스마스

- 그들은 성탄절 정신까지 훔칠 수는 없었다, 데비 풋처, 12월, 18쪽
- 나는 크리스마스를 싫어했어요, 패트리샤 알 로퍼, 12월, 22쪽
- 미대륙의 크리스마스, 12월, 어린이란 2쪽
- 새로 탄생하신 왕에게 드리는 선물, 제럴딘 에이 개렛슨, 12월, 어린이란 6쪽
- 선교사 할아버지와 할머니 성탄절, 제너 존 스티드, 12월, 어린이란 10쪽
-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목록, 리사 에이 존슨, 12월, 46쪽

예수님의 탄생, 12월, 32쪽

"천사님들은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데비 오를리안, 12월, 20쪽

크리스마스는 상점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제프리 알 홀런드, 12월, 어린이란 13쪽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12월, 2쪽

클래어 매기

북아일랜드 포오타다운에 사는 클래어 매기, 리차드 엠 롬니, 5월, 어린이란 2쪽

ㄷ

타히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넷 토마스, 9월, 46쪽

타히티의 원, 제넷 토마스, 3월, 10쪽

타히티 파괴태의 마라우 브라더스, 비비안 폴슨, 3월, 어린이란 2쪽

탐험

낙원에서의 150년, 비비안 폴슨, 3월, 어린이란 4쪽

비옥한 땅, 루스 릴리엔퀴스트, 8월, 어린이

란 2쪽

새로 탄생하시 왕에게 드리는 선물, 제럴딘 에이 개렛슨, 12월, 어린이란 6쪽

염소 털옷과 진흙 벽돌, 비비안 파울센, 2월, 어린이란 10쪽

텔레비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86쪽

토마스 에스 몬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프렌시스 엠 기븐스, 10월, 8쪽

ㄹ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의 한 가지 언어, 마이클 알 모리스, 8월, 40쪽

프란체스카 브로딜로바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녀의 선교부였다, 루스 맥콤버 프렛과 앤 사우스 닌도르프, 9월, 26쪽

프랑스

제라드와 애니 지라우드 캐리어: 항상 시작함, 바바라 위크먼, 11월, 14쪽

필리핀

가슴 가득한 사랑, 마일스 티 투어슨, 10월, 42쪽

요시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브라이언 엠 웨이트, 2월, 8쪽

필멸

사랑의 성약,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7월, 26쪽

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엠 러셀 벨라드, 7월, 22쪽

ㅎ

하나님

배도와 회복,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83쪽

학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2쪽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49쪽

함께 나누는 시간

깨끗한 생각, 캐런 에쉬턴, 11월, 어린이란 8쪽

나는 계명을 지킬 것을 믿는다, 카렌 로프그린, 3월, 어린이란 8쪽

나는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카렌 로프그린, 8월, 어린이란 6쪽

나는 법률을 지킬 것을 믿는다, 수잔 엘 위

너, 10월, 어린이란 8쪽

나는 신권이 내 삶을 축복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6월, 어린이란 10쪽

나는 신앙개조를 믿는다, 캐런 라프그린, 2월, 12쪽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습니다, 카렌 로프그린, 4월, 어린이란 4쪽

배움, 캐런 에쉬턴, 12월, 어린이란 8쪽

저는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카렌 로프그린, 5월, 어린이란 8쪽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잔 엘 위너, 9월, 10쪽

해의 왕국

배도와 회복,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83쪽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86쪽

헝가리

다뉴브의 세미나라, 마빈 케이 가드너, 4월, 34쪽

확신

신앙: 참된 종교의 진수, 고든 비 힝클리, 10월, 2쪽

회개(속죄 참조)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 65쪽

과거에 집착함, 존 비 피쉬, 4월, 18쪽

누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테레사 훈 세이커, 3월, 24쪽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트만 렉터 이세, 1월, 25쪽

용서를 구함,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74쪽

유일하게 참되고 유효한 기준,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월, 41쪽

의로운 선택을 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37쪽

초등학교에서 경건함, 3월, 어린이란 7쪽

회복

배도와 회복,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83쪽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로버트 디 헤일즈, 7월, 15쪽

희망

카메룬의 그림, 루스 코스비, 5월, 42쪽

"희망의 밝은 빛", 닐 에이 맥스웰, 1월, 34쪽

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86쪽

저자색인

ㄱ

- 가드너, 마빈 케이
다뉴브의 세미나리, 4월, 34쪽
- 갈브레이쓰, 배짜니 엘
나를 위해 창조되었네, 11월, 42쪽
- 게이츠, 크로포드
황금빛 봄날, 4월, 어린이란 13쪽
- 게렛슨, 제럴딘 에이
새로 탄생하신 왕에게 드리는 선물, 12월, 어린이란 6쪽
- 고스틱, 아드리안
셋이서 이룬 조화, 2월, 42쪽
- 곤잘레스 이세, 에디 진
신권을 존중함, 5월, 42쪽
- 곤트, 래린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명예롭게 귀환함, 4월, 26쪽
- 그레슬리, 미셸린 피
어린이들이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 1월, 12쪽
- 기븐슨, 프랜시스 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0월, 8쪽

ㄴ

- 넬슨, 러셀 엠
엘리아의 영, 1월, 84쪽
성약의 자녀, 7월, 32쪽
- 노울스, 듀엔 시
적이 친구가 됨, 12월, 26쪽
- 넌도르프, 앤 사우스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녀의 선교부였다, 9월, 26쪽
- 넬슨, 사라 브라운
따뜻하게 하는 말, 3월, 30쪽

ㄷ

- 다이어, 윌리엄 지
십대 청소년과의 대화, 11월, 28쪽
- 달튼, 다비다
엄마의 자취를 따라서, 11월, 19쪽
- 데일리, 브라이언
간증은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어요, 4월, 어린이란 6쪽
- 델린바흐, 로버트 케이
물문경 번역의 기적, 7월, 9쪽

ㄴ

- 래드, 더블류 돈
"방주를 지으라", 1월, 28쪽
- 레이, 테니스
성전 출입구에서, 12월, 10쪽
- 렉터 이세, 하트만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1월, 25쪽
- 로바론, 대일
줄리아 마빔벨라, 3월, 42쪽
- 로퍼, 패트리샤 알
나는 크리스마스를 싫어했어요, 12월, 22쪽
- 로프그린, 카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습니다, 4월, 어린이란 4쪽
나는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5월, 어린이란 8쪽
나는 신권이 내 삶을 축복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6월, 어린이란 10쪽
나는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8월, 어린이란 6쪽
나는 신앙개조를 믿는다, 2월, 어린이란 12쪽
나는 계명을 지킬 것을 믿는다, 3월, 어린이란 8쪽
- 로즈, 레베카
나의 기적, 11월, 12쪽
- 롭니, 리차드 엠
북아일랜드 포오타다운에 사는 매기, 5월, 어린이란 2쪽
허물어지고 있는 장벽, 6월, 12쪽
오스트레일리아의 캐슬리그의 매튜 크록, 9월, 어린이란 2쪽
도밍고 리아오의 승리, 12월, 40쪽
- 루이스, 바르바라
에스토니아에 개설된 교회를 증언하도록 선택됨, 9월, 10쪽
- 리빗, 델빈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5월, 어린이란 4쪽
- 루즈, 아나 루고보니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11월, 27쪽
- 리커 사론
오로지 승자만 있었다, 8월, 19쪽
- 릴엔퀴스트, 루스
안드리아를 위한 신앙의 응답, 5월, 어린이란 13쪽
비옥한 땅, 8월, 어린이란 2쪽
훌륭한 이름, 10월, 어린이란 10쪽

ㄴ

- 마틴스, 헬메시오
"망루의 파수꾼", 7월, 42쪽
- 매드슨, 트루만 지
신성한 보물, 5월, 30쪽
맥스웰, 닐 에이
"희망의 밝은 빛", 1월, 34쪽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라", 7월, 65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10월, 16쪽
- 맥스웰, 캐린
성장을 촉진하는 지도자가 되기, 7월, 95쪽
- 메이슨, 제임스 오
아프리카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발전, 1월, 30쪽
- 모데드, 베레니스 베루벤
영원한 가족, 3월, 26쪽
- 모리스, 알렉스 알
파우아뉴기니의 한 가지 언어, 8월, 40쪽
- 모리슨, 알렉산더 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4월, 10쪽
- 몬슨, 토마스 에스
형제를 지키는 자, 1월, 43쪽
고아와 과부들-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1월, 68쪽
선택할 시간, 7월, 96쪽
자비-신성한 은사, 7월, 57쪽
모든 사람이 듣게 함, 7월, 47쪽
성공을 위한 공식, 8월, 2쪽
손과 마음으로, 2월, 2쪽
신앙의 기도, 3월, 2쪽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12월, 2쪽
- 몰리나, 주아나 리디아 캄포스
식량을 위한 기도, 2월, 40쪽
- 무디, 마이클 핀린슨
신앙, 9월, 어린이란 6쪽
- 미시카, 클레어
네이트 감사, 8월, 어린이란 14쪽

ㄴ

- 백맨, 데이비드 더블류
가장 위대한 설교, 2월, 26쪽
- 벨라드, 엠 러셀
회복된 진리, 1월, 65쪽
인생의 질문에 관한 대답, 7월, 22쪽
- 베러스, 클라인 디
집으로 돌아옴, 11월, 어린이란 5쪽
- 베이트먼, 메릴 제이

내부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권세, 7월, 13쪽
 뱅거터, 라라 마요
 내 옆의 천사들, 9월, 33쪽
 벨로린, 소나
 나의 성경, 8월, 24쪽
 보웬, 아넷 팩스맨
 감독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방법, 8월, 20쪽
 뷰캐넌, 저시턴 시
 기도와 기다림, 8월, 10쪽
 브라우닝, 폴 케이
 결혼 생활과 산상 수훈, 9월, 28쪽
 브라질, 크리스테인 다 실바
 이타코아티아라에서 드린 기도, 10월, 어린
 이란 2쪽
 브론트, 몬트 제이
 자아의 탐구, 7월, 40쪽
 브렛, 페리와 야나
 경전을 소리내어 읽음, 9월, 24쪽
 브리토, 데이비드 모라자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움, 10월,
 46쪽
 브라도바, 미켈라
 나의 영혼의 묘약, 6월, 26쪽
 빈, 에바 시
 주님을 대신하여, 11월, 41쪽

入

사무엘슨, 세실 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7월, 30쪽
 설, 돈 엘
 십이사도 정원희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8
 월, 26쪽
 솔라, 페트리샤 코바루비아스
 로빈슨 크루소 섬에서 생긴 일, 3월, 40쪽
 솔리스, 에드와드 판토하스
 영원한 포옹, 4월, 8쪽
 윌러, 자넷
 저자씨 선생님, 6월 24쪽
 슈나이더, 존 엘슨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11월, 32쪽
 스코트, 리차드 지
 의로운 생활을 선택함, 1월, 37쪽
 용서를 구함, 7월, 74쪽
 스티드, 제너 존스
 선교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탄절, 12월,
 10쪽
 시그밀러, 캐롤 가필드
 테이프에 녹음된 우리 가족의 신약전서, 2

월, 46쪽

○

안토넬리, 아네트
 모범은 가장 큰소리로 울려 퍼짐, 10월, 24쪽
 애쉬튼, 카렌
 깨끗한 생각, 11월, 어린이란 8쪽
 베플, 12월, 어린이란 8쪽
 앤더슨, 페기 에이치
 소웨토에서의 세미나리, 8월, 12쪽
 엘런, 안드레아
 주님에 대한 신뢰, 7월, 93쪽
 에즐리 리차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라, 1월 39쪽
 엘리야슨, 클라우디아
 기회를 포착함, 8월, 38쪽
 에이츠, 엘마 제이
 장군, 9월, 어린이란 12쪽
 오까자끼, 지에프 엔
 배를 저어감, 1월, 92쪽
 오를리안, 데비
 "천사님들은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12월,
 20쪽
 옥스, 델린 에이치
 음악을 통한 예배, 1월, 9쪽
 장점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월, 10쪽
 배도와 회복, 7월, 83쪽
 우드리프, 디 에이
 부활절 바꾸기, 4월, 어린이란, 16쪽
 우흐트도르프, 디이터 에프
 유일하고 참되고 유효한 기준, 1월, 41쪽
 왓슨, 게일린
 선교 사업의 씨를 뿌림, 8월, 어린이란 8쪽
 워너, 수잔 엘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9월, 10쪽
 나는 법률을 지킬 것을 믿는다, 10월, 어린
 이란 8쪽
 워독, 페트리샤
 이사야와 타임머신, 3월, 어린이란 13쪽
 워스런, 조셉 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는 생수, 7월, 18쪽
 고결한 성품, 11월, 42쪽
 깊은 뿌리, 1월, 75쪽
 워시턴, 제이 벨라드
 성전 사업은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7월,
 11쪽
 워크맨, 바바라
 제라드와 애니 지라우드 캐리어: 항상 시

작함, 11월, 14쪽

워크맨, 랜스 비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니", 1월, 82쪽

윌포드, 다윈

마리아의 자장가, 12월, 어린이란 4쪽

웨이크필드, 케이 린

어린이들에게 귀를 기울임, 8월, 34쪽

선교 사업의 씨를 뿌림, 8월, 어린이란 8쪽

웨이트, 브라이언 엠

요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2월, 8쪽

이튼, 델라니

보상은 노력의 대가, 7월, 92쪽

아이어링, 헨리 비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7월, 25쪽

ス

잭, 엘레인 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월, 89쪽

잭슨, 비트리스 고프

신앙, 9월, 어린이란 6쪽

잭슨, 켄트 피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오는 장소들, 10월,
 34쪽

젠슨, 다이아나 에커셀

나는 교회에서 경건해요, 11월, 어린이란 4
 쪽

존슨, 리사 에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목록, 12월, 46쪽

존슨, 알 발

독생자를 닮았다, 2월, 34쪽

짐머만, 수잔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 6월, 18쪽

ス

체케츠, 켄

동생이 던진 질문, 5월, 8쪽

ク

카메이어, 버지니아 모간

황금빛 봄날, 4월, 어린이란 13쪽

커티스, 리그랜드, 알

사랑으로 둘러싸인 식탁, 7월, 81쪽

케스터, 사라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11월, 24쪽

코스비, 루스

카메룬의 그림, 5월, 42쪽

코스타, 클라우디오 알 엠

성공에 이르는 값진 원리, 1월, 27쪽

콜, 힐러리

그분은 도우시려고 그 곳에 있을 것입니다.
7월, 94쪽

크리스턴슨, 게리

소망할 때, 10월, 26쪽

크리스턴슨, 조 제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결혼, 7월, 63쪽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의 힘, 8월, 16쪽

크리스턴슨, 페리 엠

"너희로 실족지(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월, 28쪽

클라이드, 에일린 에이치

사랑의 배움, 1월, 94쪽
사랑의 성약, 7월, 26쪽

클래슨, 헤더

다이빙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 5월, 어린이
란 6쪽

클레이튼, 폴리스

밀과 가라지, 5월, 어린이란 10쪽

킨드레드, 세이라

형제들, 6월, 어린이란 6쪽

**.....
E**

더거, 폴 비

더 깊은 상처를 치료함, 4월, 22쪽

더커, 데릭

내 자신에 대해 배움, 6월, 20쪽

테노리오, 호레이쇼 에이

우리 가정의 요새, 1월, 23쪽

테일러, 레베카 엠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8월, 어린이란 12쪽
감사 놀이, 2월, 어린이란 6쪽

토드, 제이 엠

주님의 비유, 3월, 32쪽

토마스, 제닛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9월, 46쪽

투어슨, 마일스 티

가슴 가득한 사랑, 10월, 42쪽

**.....
F**

파우스트, 제임즈 이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 1월, 72쪽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 7월, 60쪽
목자의 책임, 7월, 44쪽
영의 음성, 9월, 16쪽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 11월, 2쪽

파울리, 윌리엄

어떤 언어든지, 12월, 8쪽

파울센, 비비안

탐험: 염소 털옷과 진흙 벽, 2월, 10쪽

패커, 보이드 케이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1
월, 59쪽

"신앙의 방패", 7월, 7쪽

페리, 엘 톰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1월, 17쪽
선택된 여성, 7월, 71쪽

의를 택하라, 11월, 어린이란 6쪽

페이스, 글렌 엘

무한한 욕구, 유한한 자원, 3월, 16일

포브스, 부르스 티

견학, 11월, 어린이란 11쪽

포키스, 캐더린 쿨

느낌이 있습니다, 10월, 어린이란 5쪽

포터, 엘 알든

하늘에서 온 계시, 1월, 62쪽

폴슨, 비비안

타히티 파피에의 마라우 브라더스, 3월, 어
린이란 2쪽

플로레, 살바토레

이탈리아어로 된 나의 첫번째 책, 3월, 8쪽

풋처, 데이비

그들은 성탄절 정신까지 흠칠 수 없었다,
12월, 어린이란 14쪽

피네가, 렉스 디

간단한 일, 1월, 80쪽

피네가, 패트리샤 피

어린이를 가르치라, 1월, 78쪽

피셔, 웬디

20일간의 목표, 8월, 8쪽

피쉬, 존 비

과거에 집착함, 4월, 18쪽

피터스, 엘버트

떨리는 걸음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6월,
28쪽

피터슨, 앤드류 더블류

부활절 회상, 7월, 79쪽

피터슨, 재닛

이브레, 페테르, 12월, 어린이란 14쪽

핀보로, 잔 언더우드

마리아의 자장가, 12월, 어린이란 4쪽

**.....
H**

하몬드, 에프 멜빈

부모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2월,
16쪽

해치, 제니 에스

아담의 하루, 6월, 어린이란 14쪽

헌릭슨, 론다

시간을 찾음, 5월, 24쪽

헌터, 하워드 더블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1월, 7쪽
의로운 아버지가 됨, 1월, 49쪽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1월, 87쪽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1월, 96쪽
성전 참여를 권고받는 사람들, 5월, 2쪽

헌트, 힐래리

간증의 힘, 2월, 24쪽

헐취, 그레첸 에이

최고의 선물, 2월, 어린이란 14쪽

헤이트, 데이비드 비

성화, 1월, 14쪽
새로운 예언자를 지지함, 7월, 35쪽

헤일즈, 로버트, 디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1월, 27쪽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7월, 15쪽
명예롭게 귀환함, 9월, 어린이란 5쪽

홀런드, 제프리 알

회복의 기적, 1월, 31쪽
우리의 신권 유산, 7월, 37쪽
크리스마스는 상점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12월, 12쪽

훈세이커, 테레사

누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3월, 24쪽

허턴, 콜린 시

두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4월, 어린이란
10쪽

힌드매쉬, 테드

듣는 귀, 4월, 46쪽

힐러, 래리 에이

아르헨티나에 이는 변화의 물결, 2월, 10쪽

힝클리, 고든 비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1월, 46쪽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1월, 52쪽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6월, 2쪽
요셉 스미스 캄넛 예언자, 6월, 8쪽
여러분 내부의 빛, 7월, 98쪽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7월, 68쪽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
입니다, 7월, 50쪽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월, 86쪽

이 축복받은 시대, 9월, 2쪽

신앙: 참된 종교의 진수, 10월, 2쪽



그림: 그레고 울슨, 아기 그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는 시므온

시므온은 아기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 션도…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4~7)